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반드시 수개표해야 선거결과 인증”

버지니아의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료들이 오는 11월5일 선거 투표용지를 수개표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겠다고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웨인스보로우 시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커키스 릴리 위원장과 스콧 마레스 부위원장은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기계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개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0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관 직원들이 개표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표기의 비밀스러운 개표 결과를 절대로 검증할 수 없기에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고 측은 또한 현재 개표시스템이 선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버지니아 헌법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투

VA 공화당 선관위 대상 소송



표용지를 개표기로 집게해 결과를 도출한다. 하지만 원고측은 개표기 개표 결과와 실제 투표용지 개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개표기가 온라인으로 연결될 경우 조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와 버지니아 법무부는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진영에 속하는 선관위 관료들이 대선이 코앞에 닥치자 이슈를 생산하기 위해 고의적인 선거업무 방해행

위로 간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 결과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전국 19개주에서 각종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오히려 개표기 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

현재 연방법원은 수개표의 오류가 매우 심하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결과발표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는 모든 선거 전에 투표기와 개표기의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부적격 유권자를 거르기 위해 매일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도록 했으나,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선거 90일 이전 유권자 명부 수정 금지를 규정한 연방선거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옥채 기자

1380원 뚫은 환율 ‘트럼프 리스크’도 한몫

단단한 미국경제, 금리인하 신중론
대선 2주앞, 트럼프 당선 확률 상승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380원 선을 돌파하며 약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뒷받침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운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4.9원 떨어진 1380.1원에 마감했다(환율은 상승).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80원 선을 돌파한 건 지난 7월 30일(1385.3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화 가치는 장중 한때 1382.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이후 132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화 가치는 최근 다시 하락세다. 지난달 30일(1307.8원) 이후 13거래일 동안 70원 넘게 떨어졌다.

이는 우선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달러에 힘을 실고 있다. 9월 고용보고서 등에 나타난 고용 지표가 탄탄하고, 소매판매 증가율도 식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Bank of America(BoA)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큰 침체를 겪지 않고 연속착륙 가능성을 76%로 내다보고 있다.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가능성은 14%다. 한 달 전(7%)보다 두 배 상승한 수

치다.

이에 일부 Fed 인사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1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1%포인트 급등한 4.20%로 올라섰다. 이는 7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글로벌 장기채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시장금리에 반영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주는 곳을 찾는 해외투자 자금은 미 국채로 흘러가고 이는 달러값을 높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한때 104선을 돌파하며 약 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강달러에 힘을 실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배팅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오효정 기자

▶ 4면 ‘환율’로 이어집니다

“용산, 대화 각색 말고 QA에스냐 노냐 답하라”

한동훈, 민순회동 뒤 측근에 비판
“용산, 설명에 설명 덧붙여 여러 말
본질은 3대 제안 No하겠다는 것”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유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다음 날인 22일 측근들에게 “용산은 지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 예스(yes)냐 노(no)냐를 말할 때”라고 말했다고 친한계 인사가 전했다.

해당 인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지금 용산 대통령이 여러 말을 하면서 설명에 설명을 덧붙이지만, 결국 본

질은 내 3대 제안에 대해 모두 노(no)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결국 민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은 이를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가 말한 김 여사 관련 3대 제안은 ▶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의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다.

대통령실은 회동 당일인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침묵했지만 다음 날 대통령실 고위 관

계자의 발언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말의 각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일부 표현을 교묘하게 비틀어 실제 내용과 다른 것처럼 공지한 것에 한 대표가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 측은 회동 직후 나온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손국화·윤지원 기자

▶ 2면 ‘한동훈’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이 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윤 대통령 “힘든 상황은 내 업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윤 대통령, 논란 정면돌파 의지
“의원들, 야당편 선다면 어쩔수 없어”
“집사람, 나와 달리 명씨 달래려 한듯”
“집사람 의혹 있으면 구체화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81분간 차담에 대한 대통령실의 복기는 한 대표 측과 차이가 컸다.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여당 의원 30여 명을 만나 김 여사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 (재의결을) 막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는 4표였지만 특검법안이 다시 올라오면 추가 이탈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명태균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 여사 특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이런 그리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

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한 대표의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야기했는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해 주면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며 답했다고 한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 달라”며

‘윤·한 회동’ 어떤 말 오갔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2일 재표결 때 의원 30명 정도를 설득해 막았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걱정된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	한
어느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는가.
윤	윤
대통령실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여사 라인 실명 언급하며) 경질 등 인적쇄신 해야 한다. 공기업에도 임명하면 안 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상관 없이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한	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이들이 무슨 문제를 야기했다는 건지 전해 달라.	특별감찰관은 여아가 혐의할 문제다.
윤	윤
김 여사 대의활동 중단	명태균 의혹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대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의혹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
한	한
아내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미 스스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정치공세에는 당도 정치공세로 대응해 달라.
윤	윤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는 “여아가 합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24 부산 세계 자원봉사대회’ 참석 차 부산을 들렀다가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사찰 관계자들에게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범어사를 찾은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산 초량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직접 뵈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살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한, 강훈·김오진 거론하며 “기관장 임명 안돼”... 윤 “확인된 잘못 있나”

(김여사 라인 의혹)

▶ 1면 ‘한동훈’에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는 ‘헌정 중단’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심을 받아들이고, 지금 문제(여사 문제 등)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마치 한 대표가 용산과 여사 문제를 공동으로 막아내기로 한 것처럼 알렸으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전날 회동 발언도 비교적 상세하게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이상하지만, 대통령실이 여사에 관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슈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난 2일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 수십 명에게 부결을 호소한 점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나서서 막아준 것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도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즉 ‘한남동 라인’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8명의 비서관·행정관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하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호가호위하는 것은 국민 신뢰에 큰 문제가 된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특정 인사와 이들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은 반드시 잘라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강기훈 행정관 경질은 강하게 요청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이다. 한 대표는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공공기관장행을 거론하며 “절대 임명하시면 안 된다. 지금 모두가 (공격하기 위해) 버르고 있

는 사안이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잘못이 확인됐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반응은 사실상 거절의 의미라는 게 한 대표 측 얘기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의활동 중단을 설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의활동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서 ‘대의활동 중단’을 확실히 선언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하군수 보궐 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했다. 현장에서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하는 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했다.

전날 오후 6시15분쯤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끝낸 뒤 2시간 만에 나온 공개 발언이었다. 면담 후 한 대표는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일임한 뒤 장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참석하려던 국회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한 대표가 잠시 혼자만의 산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당 지도부 인사)이라고 한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및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한 긴급 만찬 자리에서 “인식의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박정하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외에도 조경태·송석준 의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출신 주천우·안상훈 의원도 모임에 얼굴을 비쳤다.

만찬 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대표가 본인이 준비했던 이야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쪽 설명했다. 문제를 바라보는 간극이 컸다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김 여사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원천 차단되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만찬을 시작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꺼낼 시기가 아니다”며 “특검법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 취임 후 친한계의 공식 회동은 22명이 모인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내일(23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국희·윤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24일(목)	66~40	☀️	27일(일)	61~38	☁️
25일(금)	69~52	☀️	28일(월)	63~45	☀️
26일(토)	71~44	☁️	29일(화)	71~53	☁️

10월 23일(수) 80~5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부고



고 손목자 집사
1942년 5월 11일 ~ 2024년 10월 5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안에 워싱턴지구총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며 순명환 집사 아이글로벌대(현 워싱턴 과학기술대) 전총장의 부인으로 전 워싱턴가정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GCF(글로벌어린이재단) 창립 및 이사장과 총회장을 역임, 워싱턴 중앙대 동문회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며 주를 위해 신한 싸움을 마치고 **고 손목자 집사**가 2024년 10월 5일 향년 82세로 하나님의 천국안식의 부름을 받으심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배의 장에 함께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고별예배

■ **일시:**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 **장소:** 남침례회 워싱턴지구총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9
301-460-1656 (교회)

* 조의금 전액은 Global Children Foundation에 기부됩니다.

유가족

부군: 손영환
장남: 손진평
차남: 손진석

자부: 에이미
자부: 줄리

손: 안아, 아진
손: 이든, 엔질리카

연락처: 301-529-5465

“영적, 육체적 굶주림 종식될 때 까지”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 이사장 및 회장 이취임식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KAFHI)이 신입 이사장 및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예배를 겸한 이취임식에서는 백신종 목사가(벤엘교회 담임목사) 신입이사장에, 유원식씨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7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류응렬 목사와 국제기아대책연대 회장 랜디 호그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최창남(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배현찬, 권덕이, 이종관, 김형균, 박 엘리사, 김대영 목사와 이세희 장로, 박상근 장로 등 목회자 및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KAFHI의 힘찬 도약을 응원했다.

신임 유원식 회장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KAFHI 이사장 및 회장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의미”라면서 “세상에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될 때까지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를 자립시켜 신앙적,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또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도록 존재 의미에 충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날 열린 감사예배는 워싱턴성광고

회 임용우가 목사가 ‘지극히 작은자에게 한 것(마태복음 25:31-41)’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권사합창단이 축하무대를 꾸몄다.

문의: 703-473-4696(정승호 미주기아대책 사무총장)

김윤미 기자

“인생 마지막 날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길”

가든교회 창립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성료

가든교회(담임목사 한태일)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개최된 부흥사경회에는 안양 일심교회 김홍석(사진)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세가지 뜻(데살로니5:16-18),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23:1-6), ‘선한 정치기일이 봉사하라(벧전4:4-11), ‘좋은 교회, 좋은 성도(벧4:1-7),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눅15:25-32)’ 등을 주제로 예배를 인도했다.

김 목사는 “가든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늘 인도하실 것이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안위하시며, 잔이 넘칠 정도로 복을 주실 것”이라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대접하고 봉사하며 살 것을 권면했다.

한편 이번 부흥사경회는 30년전 가든교회를 개척해 한길 인생을 걸어 온 한태일 목사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를 앞두고 마련됐으며 2대 목사로 위임 받는 남지현 목사와 향후 30년의 열정과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문의: 410-461-9621 김윤미 기자

푸드트럭 전기발전기 무이자 대출

MD 몽고메리 카운티 시범 프로그램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푸드트럭 등 모바일 영업장 전기 발전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최근 푸드트럭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디젤 발전기를 통해 소음과 오염물질 문제가 대두됐다. 몽고메리 카운

티는 이들 푸드트럭 업주가 디젤 발전기를 폐기하고 전기 발전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신청을 받은 후 25대를 선정해 총 25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푸드트럭 뿐만 아니라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식 애완견 그루밍 서비스 차량 등도 포함



푸드트럭 업주가 디젤 발전기를 폐기하고 전기 발전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된다. 카운티 정부는 지원자가 많은 경우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주기적으로 무이자 융자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스포츠 도박 중독 심각

VA 베팅금액 1년새 31% 증가

버지니아가 지난 2021년 스포츠도박을 합법화한 이후 매우 빠르게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스포츠 도박 베팅 금액이 모두 4억16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0.6% 증가했다. 작년 세금 수입만 6900만달러로 주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중독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심리학회(APA)의 분석에 따르면 중독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은 25세 미만의 남성이다. 12-18세 미성년자의 스포츠도박 중독현상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폴 톱코 하원의원(민주, 뉴욕)과 리처드 블루멘털 연방상원의원(민주, 코네티컷)의 공동발의로 스포츠도박 중독 방지를 위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스포츠도박 중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년 이상의 예산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케틀라인 하우레이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교수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전화(1-888-532-3500)가 96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NFL 풋볼 시즌이 개막하면서 시즌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중독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이번 풋볼 시즌의 전국 스포츠 도박 베팅 예상 금액은 모두 350억달러에 이른다. 김옥채 기자

가정불화로 부인 살해 후 자살

가정불화 끝에 부인을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메릴랜드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웨리프국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렉싱턴 파크의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알라시아 자넬 밀번(25)가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

으며 생후 7개월짜리 아기가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목격자는 남편인 용의자가 현대 코나 차량을 타고 루트 5번 도로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웨리프국은 칼벳 카운티와 찰스 카운티 웨리프국,



메릴랜드 주립경찰국 등에 협조를 구해 용의자를 추격했으며 칼벳 카운티 프린스 프레드릭 로드 선상에서 대치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대치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후 권총으로 자결했다.

당국에서는 두 사망자가 부부관계이며 심각한 가정불화 끝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Distinguished Ethical Standards 2019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인 체스 천재, 대회 퇴출

17세 크리스토퍼 유군
게임진 후 폭행 등 물의



선수의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규정 위반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 모든 참가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인트루이스 체스 클럽은 유군의 퇴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게 클럽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대회 관계자들은 유군이 대회의 첫 다저 라운드에서 기록한 결과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따라 대회 순위도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체스닷컴(Chess.com)에 따르면 유군은 자주 출신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어린 그랜드마스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미국 주니어 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이번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S 체스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됐다. 장수아 기자

MLB 148년

다저스 토미 현수 에드먼 선정
6차전서 4번 타자 4타점 맹타
어머니 한인...한국 대표팀 이력

LA다저스가 뉴욕 메츠를 꺾고 4년 만에 월드시리즈(WS) 진출에 성공했다. 승리의 주역은 한국계 선수인 토미 현수 에드먼(29)이었다.

다저스는 지난 20일 LA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6차전에서 뉴욕 메츠를 10대5로 꺾었다. 이로써 다저스는 4년 만이자,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최고 명문 팀 뉴욕 양키스와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맞대결도 43년 만에 성사됐다.

NLCS 6차전의 영웅은 에드먼이었다. 그는 이날 4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투런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에드먼은 NLCS 6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타율 0.407), 1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23을 기록하며 이번 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 한국계 선수가 포스트시즌 MVP에 선정된 건 메이저리그 148년 역사상 처음이다.



다저스의 한국계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이 20일 경기 후 MVP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로이테]

MLB닷컴은 "다저스는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등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타자는 예상치 못한 선수"라고 에드먼을 소개했다. 그

첫 한인 MVP

(포스트시즌)

러면서 "시즌 중간에 이적해 포스트시즌 MVP에 오른 건 에드먼이 역대 12 번째"라고 설명했다. 손목과 발목 부상 탓에 부상자 명단에 오른 채 이번 시즌 개막을 맞았던 에드먼은 7월 말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다저스로 팀을 옮겼다.

에드먼은 한인 이민자 광경아씨와 미국인 아버지 존 에드먼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다. 한국식 이름은 광현수로, 성은 어머니를 따랐으며 이름은 외할머니가 지어줬다고 한다.

에드먼은 태극마크를 달고 뛰이력도 있다. 그는 지난해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으로 출전했다. 부모 중 한 명의 출생지에 따라 출전국을 결정할 수 있는 WBC 규정에 따라서다. 2006년 초대 WBC 이래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한 건 에드먼이 처음이었다.

에드먼은 스탠퍼드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6년 신인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지명됐다. 마이너리그를 거쳐 2019년 빅리그에 데뷔한 에드먼은 2021년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골드글러브(내셔널리그 2루수)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

한인매체 합동인터뷰서 강조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 스틸(공화·45지구·사진) 연방하원의원은 21일 부에나파르크의 더 소스 몰 내 선거 사무실에서 가진 한인 언론매체 합동 인터뷰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선거를 2주 남겨둔 스틸 의원은 "지금까지 치른 선거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exciting) 선거이기도 하다. 공화, 민주당이 45지구에 쏟아붓는 돈을 합치



면 3000만 달러인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을 노리는 스틸 의원은 남은 캠페인 기간 유권자와 접점을 넓히면서 8개 언어로 제작한 선거 홍보물 발송, TV 광고, SNS를 활용한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도 혐의 40대 한인변호사 10년형 선고

14세 소녀 위장 경관에 덮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방경찰 뉴욕 남부지검과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따르면, 서동현(영어이름 제이슨·사진) 씨는 2022년 4월 24일 캐나다 기반의 메신저 플랫폼 키크(Kik)를 통해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 중 부적절한 사진 및 만남을 통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요



구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이 26세부터 브롱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같은해 5월 27일 서씨는 메간이 불러준 그리니치 주소로 이동했고, 경관에 체포됐다. 그의 소지품으로는 드라이브, 랩탑, 메간이 요구한 마리화나 등이 적발됐다.

뉴욕 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뉴욕남

부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30년 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때 따라 지난 17일 징역 10년과 10년의 추적관찰형이 선고됐다.

이날 웹사이트 마틴 데일(martindale.com)의 서씨 추정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후 2003년 변호사 자격을 시작했다. 강민혜 기자

2024년 11월 5일 선거에서 표결 될 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설명

상정된 헌법 개정안

제10조. 조세 및 재정.
6-A항. 재산세 면제: 특정 퇴역군인 및 이들의 생존 배우자, 전투 중 사망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

투표지의 질문

현재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면제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버지니아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유권자를 위한 설명

현행법

일반적으로 버지니아 헌법은 모든 재산에 과세를 요구합니다. 또한 과세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헌법은 미국 국방부가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의 주요 거주지에 대해 총회(General Assembly)가 세금을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수정안

상정된 수정안은 현재의 세금 면제를 확대하여 미국 국방부에서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을 포함하여, 군 복무 중 사망으로 판정된 군인의 생존 배우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성"에 투표를 하면 현재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게만 제공되는 주요 거주지에 대한 동일한 재산세 면제를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도 그들의 주요 거주지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에 투표를 하면 그러한 추가 생존 배우자가 주거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안 전문

[상정된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삭제된 구 문구는 선을 긋어 표시했습니다.]

제10조 조세 및 재정

6-A항. 재산세 면제: 특정 퇴역군인 및 이들의 생존 배우자, 전투 중 사망한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

(a) 제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일반법에 따라 거기에 규정된 제한사항 및 조건내에서 연방법에 따른 미국 재향군인회 또는 해당 승계기관은 100% 복무 관련, 영구 및 완전 장애를 갖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그들의 주요 거주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정된 모든 퇴역군인의 남편과 아내의 공동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세 부과로부터 면제합니다. 또한 총회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본 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이었던 퇴역 군인의 생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배우자가 다른 주요 거주지로 이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생존 배우자의 주요 거주지에 적용합니다.

(b)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일반법에 따라 거기에 규정된 제한사항 및 조건내에서 미국 국방부의 판정에 따라 전투 중 사망한 임무 수행 결정에 따른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해당 부동산을 그들의 주요 거주지로 점유하고 있는 미국 군대 일원의 생존 배우자의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면제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중단되며 그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면제는 배우자가 본 항의 발효일 이전에 전투 중 사망한 군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면제는 발효일 이전의 어떤 기간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면제는 배우자가 다른 주요 거주지로 이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그리고 군대 일원의 사망 당시에 버지니아주에 해당 배우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없이 생존 배우자의 주요 거주지에 적용됩니다.

"맵달' 메뉴가 미국식당 점령

최근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맵고 달달한' 맛의 메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런 메뉴들의 상당수가 한국 고추장을 양념으로 쓰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2일 보도했다.

CNBC는 "'맵달'(Swicy) 아이템이 레스토랑 메뉴를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가장 '핫'한 식음료 트렌드가 맵고 달콤한 맛이라고 전했다. 또 맵다는 뜻의 스파이시(spicy)와 달콤하다는 뜻의 스위트(sweet)를 조합한 신조어 '스위시'(swicy)를 소개하면서 "이 용어가 실제로 메뉴판에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달콤하고 매콤한 음식의 부상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센셜에 따르면 미국 전체 레스토랑 메뉴의 약 10%가 이런 '달콤-매콤한'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2개월간 1.8% 증가한 수치다. 또 이런 메뉴는 향후 4년 동안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CNBC는 최근 미국 식당에서 인기 있는 메뉴들이 주로 "과일 맛과 다양한 고춧가루(chili powder)를 함께 사용하거나 한국의 인기 조미료인 고추장과 매운 꿀 같은 소스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표적인 사례로 셰이크쉿(Shake Shack)의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샌드위치'를 소개했다.

셰이크쉿은 한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로 고추장 양념으로 코팅한 치킨을 넣은 샌드위치를 선보였고, 이 메뉴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셰이크쉿의 수석 셰프이자 요리 혁신 담당 부사장인 존 카랑기스는 "물론 고객들로부터 좋



셰이크쉿의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샌드위치'

[셰이크쉿(Shake Shack) 블로그 게시 사진]

은 피드백을 많이 받지만, '조금 더 맵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피드백도 들었다"고 말했다.

맛 트렌드 분석가인 케라 닐슨은 미국에서 매운맛과 달콤한 맛의 조합이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매운맛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10년대에 미국 식품회사 '마이크 핫 허니'(Mike's Hot Honey)의 매콤한 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맵고 달콤한 맛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근래에는 한식, 특히 매콤달콤한 고추장소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맛의 조합을 찾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햄버거나 피자 등 전통적인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맵고 달콤한 맛의 인기가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특히 매운맛 트렌드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에겐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엔씨솔루션스(NCSolution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핫소스 전문가'로 인식했다.

▶ 1면 '환율'에서 이어집니다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 가치와 위안화 가치도 각각 150엔대·7.13위안대에서 거래되며 동반 약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로 갈수록 미 대선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환율 하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효정 기자

‘한인 당선인’ 10년 새 80% 급증

<2014 vs 2024>

KAI 미주한인정치연감 ②

10년전 첫 4년간 39명 → 71명
10명 중 7명은 뉴저지·가주
남 55%... 성별 분포 큰차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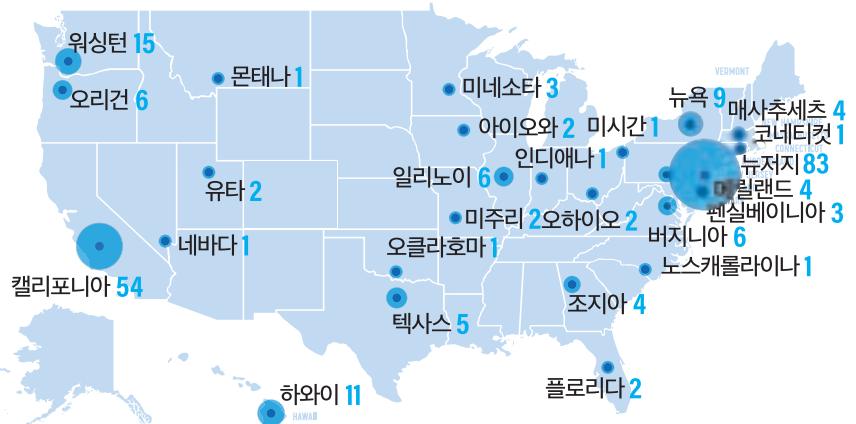
비영리재단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회장 마크 김)가 최근 발표한 미주한인정치연감(본지 10월 21일자 A-1면)을 분석한 결과, 한인 선출직 정치인의 수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를 비교하면, 약 10년 새 한인 선출직 정치인은 80% 가까이 늘었다.

먼저, 한인 선출직 정치인의 역사는 필립 민(하와이주 하원의원), 로버트 원배 장(하와이주 하원의원) 등이 배출되었던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어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 각 한 명씩 당선됐다.

한인 선출직 정치인은 1990년대 21명, 2000년대에는 38명으로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때 한인 정치력의 비약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대에는 96명이 선출됐다. 이를 5년 주기로 나눠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9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7명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한

주별 선출직 정치인 수



인 사회의 정치력이 신장된 시기로 평가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71명이 선출됐다. 현재 한인 1.5세, 2세들의 정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대의 수를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뉴저지 지역(110명)에서 가장 많은 한인 정치인이 배출됐고 캘리포니아(54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 70년간 선출된 한인 정치인(총 231명) 중 약 70%가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등에서 나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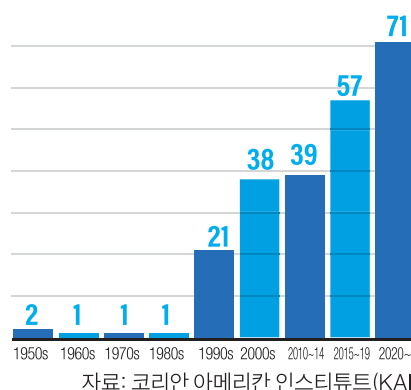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한인 인구가 적은 위스콘신(프란체스카 흥·주 상원의원), 미시간(훈영 호프크·주 상원의원), 노스캐롤라이나(마리오 베너

벤트·시의원), 코네티컷(김벌리 피오레요·주 하원의원), 몬테나(이호 포페로이·커미셔너, 네바다(프란시스 앨런·팔렌스카·시의원), 오클라호마(대니얼 배·주 하원의원) 등에서도 한인 정치인이 한 명씩 선출됐다는 점이다. 미주리주(존 패터슨·에밀리 수 웨버·주 하원의원)에서도 두 명의 한인이 선출된 바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 128명, 여성 10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로 내정된 스티브 강은 “한인 이민 역사가 깊어지며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5세와 2세가 정치에 참여하는 나이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대별 한인 선출직 당선자

*최초 취임 시기 기준



그는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비교적 시골인 지역에서도 한인들이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인의 수는 적어도 백인이 많은 지역에서 한인들이 당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로컬 정부뿐만 아니라 시정부, 주정부, 연방의회 등 다양한 위치에 한인들이 선출되고 있고,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KAI 자료에 따르면, 첫 한인 연방 하원의원은 김창준 의원(1993-1999)이다. 약 20년 후인 2019년에는 앤디 김 하원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여성으로 처음 선출된 한인 정치인은 엘레노어 김 차우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 교육위원회에서 1970년부터 1993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한국서 영주권 사기 한인 법원이 추가 징역형 선고 의사 사칭 취득알선 혐의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여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명 ‘제니퍼 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한화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당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

지휘자 김은선, SF오페라단과 5년 계약 연장

102년 역사의 첫 여성 음악감독 “예술적 성취 위한 매일이 영광”

여성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오페라단의 지휘봉을 잡아 ‘금녀의 벽’을 허물었다고 평가받는 지휘자 김은선(사진)이 오는 2031년까지 오페라단을 이끈다.

샌프란시스코오페라단은 지난 17일 김은선 음악감독과의 계약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오페라단에 부임한 김 감독은 당초 계약



이 오는 2026년까지였다. 김 감독은 102년의 역사를 지닌 오페라단의 첫 여성 음악감독이자 미국의 주요 오페라단을 이끄는 유일한 아시아계 여성이다.

매튜실브크 오페라단 단장은 “김은선 음악감독은 모든 악보에 활기, 감수성, 인간미를 불어넣어 작품을 마치 처

음 듣는 것처럼 해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미래를 바라보는 샌프란시스코오페라에게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오페라에 계속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재계약) 제안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의 예술적 수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매일이 영광”이라고도 밝혔다.

김 감독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금녀의 벽’을 깬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스페인 마드리드 오페라극장에서 여성으로는 처음 지휘봉을 잡았다. 또 그는 ‘세계 3대 관현악단’ 중 두 곳인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지휘 단상에 서기도 했다.

한편, 그의 부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정책기획수석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재 전 장관이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음악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음악도 행복해집니다

주목음악가 · 상업음악가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빌딩
웨일리노래방

미락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멋대로 움직이며 욕설”... 공포의 로봇청소기

해킹당한 중국산 제품
반려견 쫓아다니며 위협
전문가 “업체 조치 미흡”



해킹당한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에코백스 디봇 X2 콤보. [에코백스 인스타그램 캡처]

해킹당한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욕설 등이 재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가정집 곳곳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 ‘에코백스 디봇 X2’ 제품이 해킹당해 ‘F**K’ 등의 욕설을 내뿜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변호사 다니엘 스웬슨은 지난 5월 이같은 피해를 봤다. 그는 TV 보던 중 해당 로봇 청소기에서 끊어진 라디오 신호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청소기 앱을 살펴보면 그는 낮

선 사람이 청소기에 내장된 카메라와 원격 제어 기능을 해킹한 사실을 발견했다. 스웬슨은 기계 오류라 생각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기기를 재부팅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공포 영화처럼 청소기가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욕설

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청소기에서는 ‘F**K’ 등 성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욕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는 스웬슨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텍사스주에서도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가 밤늦게 주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보고됐다. LA의 한 가정집에서는 청소기가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위협했다는 사례가 나왔다.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중 총 몇 대가 해킹됐는지, 해커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스웬슨은 청소기에서 나온 목소리로 짐작했을 때 해커를 10대로 추정했다. 스웬슨은 해킹 사실을 에코백스 측에 알렸다. 처음에 회사 측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으나 조사 결과 스웬슨의 에코백스 계정과 비밀번호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범인의 IP 주소를 파악해 추가 접근을 막았다고 밝혔다. 로봇 청소기의 비디오 피드에 접근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은 4자리 PIN 번호로 보호되는데, 보안 전문가들은 “기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PIN 번호를 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코백스 측은 해당 결함은 현재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회사의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에코백스는 오는 11월 X2 시리즈를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보안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예슬 기자**

브리프

보잉 노사, 임금 35% 인상안 타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사가 지난 19일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노조 측이 밝혔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지부 성명에 따르면 보잉 노사는 이 같은 임금 인상안과 함께 연간 최소 상여금 지급과 특별상여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 IAM 751지부는 보잉 본사가 있는 시애틀 등 북서부 연안 지역 노동자 3만여명을 대변하는 보잉의 최대 노조다. 잠정 타결안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서 보잉 노조 지도부는 사측과 25%의 임금 인상안을 잠정 타결했지만, 노조원 95%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보잉은 737맥스 기종의 잇따른 사고로 회사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노조가 지난달 13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항공기 제작 및 인도에 차질을 빚어왔다. 보잉 노조의 파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보잉은 파업 돌입으로 3분기 손실 확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10%인 1만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퍼플렉시티, 추가 자금 조달 나서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새로운 펀딩 라운드를 통해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다. 지난 20일 CNBC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약 9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를 시작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는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으로 약 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회사는 30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자금 조달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의평의 관계자는 전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열풍 속에 세 번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거치며 투자자의 관심을 꾸준히 끌어왔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일부 기사 무단 사용 의혹 등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소매체인 판매 냉동와플 리스테리아 오염에 리콜 월마트·타깃·크로거 등

월마트, 타깃 등 전국 여러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냉동와플 제품 수백종이 리콜된다.



매처에서 환불받으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인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트리하우스푸드 웹사이트(treehousefood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체 트리하우스푸드는 지난 18일 제조 시설 정기 안전 검사에서 일부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자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에도 이미 리콜을 알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 브랜드, 제품, 제조코드 등이 각기 다른 총 698개 제품이다. 제품 중에는 월마트의 자체 브랜드 그레이트밸류(Great Value), 타깃의 굿앤게더(Good & Gather), 크로거의 심플트루스(Simple Truth·사진) 등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는 해당 제품들로 인해 발병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리콜 제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폐기하거나 구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균의 일종으로 고열과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 신생아, 65세 이상 시니어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전국 1600명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되며, 이 중 약 260명이 사망한다. **우훈식 기자**



삼양, 뉴욕서 불닭소스 제품 교환 삼양라운드스퀘어는 뉴욕에서 소비자가 사용 중인 소스를 가지고 오면 불닭 새 제품을 주는 ‘소스 익스체인지’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는 행사장에서 참가자가 가지고 온 소스를 ‘불닭 마녀’로 바꿔줬다. 참가자는 불닭 마녀를 불닭 소스, 라면 등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푸드트럭에서 불닭 소스를 활용한 음식을 살 수 있다. 행사 첫날인 지난 17일에만 수천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참가자 중에는 5시간을 이동한 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 제공]**

“심문·판단력 이식·길들이기 등이 핵심 능력”

생성 인공지능(AI) 시대 꼭 필요
“기계와의 단계적 사고법 익히야”
기업들이 업종 불문 대거 ‘생성 AI(인공지능)’ 도입에 나서며 직장인의 조바심이 커진다. 주변에서 ‘AI를 잘 쓰라’는 당부만 할 뿐 이 신기술과 관련해 필요한 역량이 뭔지 다들 막막해하기 때문이다. 챗GPT 프롬프트(지시어)나 모범 활용 시나리오를 찾아보지만, AI 모델이 업데이트되면 요긴했던 비법이 무용지

물이 되기 일쑤라 미답지 않다. 바뀌지 않는 ‘필수 능력 목록’이 없을까. 21일 AI 업계에 따르면 IT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의 폴 도허티 CTIO(최고 기술혁신책임자)는 액센츄어 리서치의 제임스 윌슨 대표와 함께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최신훈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인의 근원적 생성 AI 역량(기술)을 ‘심문’ ‘판단력 이식’ ‘도제로 길들이기’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생성 AI를 똑똑한 조수로 만들려면 맨 먼저 필요한 능력이 ‘심

문(interrogation)이다. 이는 시켜야 할 일을 단계별로 쪼개고 단계마다 기계에 கே물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챗GPT o1’ 등 최신 생성 AI는 답을 내는 과정을 단계별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매 과정을 사람이 짚어보고 최적화하는 것이다. 심문을 잘하려면 실무를 논리적, 추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력 이식(judgment integration)은 생성 AI의 신뢰성과 안

정성을 지키기 위해선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이는 AI의 답이 정확하지, 편견이나 치우침이 있는지, 회사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등을 따져 데이터 수정이나 추가 훈련 등 조처를 하는 역량을 뜻한다. AI가 탈선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안전장치’를 묶어 두는 것이다. 판단력 이식을 하려면 AI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AI의 변화무쌍한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 AI의 작동 원리에 관한 기초 이해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원사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하연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절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직접 김치 담그고, 외식으로 떡볶이... 프랑스 사로잡은 K푸드

국내 식품기업 100여곳 제품 소개
비건 초코파이 등 현지화 노력
현지선 건강식·합한 이미지로 인기
“한국인의 음식 열정, 세계화 비결”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빌팡트전시관에서 세계식품전시회 '시알(SIAL) 파리 2024'가 열렸다. ■ 호주에서 온 바이어 산카는 “13살 아들이 떡볶이를 좋아해 자주 먹는다”면서 떡볶이 제품을 호주에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한 이용경 셰프(오른 쪽)는 전시회에 참가해 잡채를 만들어 선보였다.



다로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도 그중 하나다. 수제 초코파이를 만드는 풍년제과는 국산 계란이 들어간 제품의 유럽 수출이 어렵자 계란을 뺀 비건 파이를 개발했다. 기업들은 ‘김치 맛 김’, ‘딸기 맛 및키스’처럼 외국인 입맛을 겨냥한 해외용 제품을 출시하거나 김치를 동결건조한 김치블록, 가루

형 파우더 등 소비자가 조리하기 쉬운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달라진 K푸드의 위상을 부쩍 느낀다고 전했다. 한식이 중·장년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리미엄 건강식’으로, 젊은 프랑스인 들에게는 ‘합한 음식’으로 통한다는 얘기가 었다.

20년간 프랑스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이용경 셰프는 “야채가 많이 들어간 한국식 비빔밥이 프랑스에서 건강식으로 꼽히면서 파리 부촌에서는 한식 소비에 주머니를 아끼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한식은 ‘합’의 상징이다. 10년 넘게 파리에 거주한 선우운 씨는 “프랑스인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김치를 담갔다고 보여줘서 깜짝 놀랐다”며 “주말 가족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인들이 자녀와 파리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이젠 흔해졌다”라고 말했다.

파리=이수정 기자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서울 코엑스 전시 면적의 7배가 넘는 27만㎡ 규모 전시장에는 세계 130여 개국 7500개 이상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 참가도 역대 최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꾸린 한국관에는 75개 중소기업이,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도한 ‘K푸드 선도기업관’에는 풀무원·아워홈·오뚜기·샘표·매

일유업·롯데웰푸드·빙그레 등 9개 기업이 참가했고, 개별 참가 기업도 20곳 이상이다. 페루에서 온 나탈리는 수출용 치즈 라면을 선보인 오뚜기 부스에서 “땀만 해도 페루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라며 “한국 라면은 지역별 맞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은 식품 규제가 가

다로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도 그중 하나다. 수제 초코파이를 만드는 풍년제과는 국산 계란이 들어간 제품의 유럽 수출이 어렵자 계란을 뺀 비건 파이를 개발했다. 기업들은 ‘김치 맛 김’, ‘딸기 맛 및키스’처럼 외국인 입맛을 겨냥한 해외용 제품을 출시하거나 김치를 동결건조한 김치블록, 가루

IMF “한국 올해 성장률 2.5% 유지... 미국은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이 역시 이전 전망 때와 동일한 수치다.

IMF는 22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날 올해 마지막 전망을 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때 전망한 수치와 같은 2.5%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다.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로 본다. 해외기관의 시각도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모두 IMF와 같은 2.5%를 예상하고 있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올해 전 분기 대비 1분기 경제성장률이 깜짝 성장(1.3%)을 한 영향이 반영됐다.

이후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날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7월 전망 때부터 “한국이 1분

기 깜짝 성장의 기저 효과에 따라 2분기에 소폭 역성장할 수 있다”고 약재를 반영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과 같은 3.2%로 지목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를 3.3%에서 3.2%로 내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이어온 긴축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성장·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요한 약재다.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 지속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2.8%로 올라갔다. 지난달만 해도 “미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p인트 ‘빅컷’(Big cut) 했지만, 계속해서 호황을 이어가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I

MF는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2.2%로 상향 조정된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인 중국을 두고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떨어뜨렸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하고 소비 심

리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4.5%였다.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0.3%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자동차 생산 차질 등 때문이다.

IMF는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당국에 대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했다.

또한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흐름 제한 조치 활용을 제안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배터리 곤욕 겪은 벤츠... “폐배터리 재활용” 독일 공장 가동

구리 등 원료물질 96% 뽑아 재활용
벤츠 그룹 내 배터리 벨류체인 완성
“독일서 배터리 생산~재활용” 강조

동하고 있었다. 신발 상자 크기의 배터리(모듈)는 컨베이어 벨트 끝에서 분쇄된 뒤 플라스틱·철·구리·알루미늄 등이 추출돼 포대에 담겼다.

“벤츠 전기차에 탑재됐던 폐배터리가 이곳으로 모이면 원료의 96%를 뽑아낼 수 있어요.” (마누엘 미헬 벤츠 배터리 재활용 총괄)

이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모듈은 연 5만개. 전기차 약 5000대에 들어가는 양이다. 추출된 원료는 다시 새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일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날 쿨펜하임에서 6800㎡ 규모의 재활용 공장 개소

식을 열고 배터리 ‘벨류체인’(원료-생산-순환) 자체 구축 의지를 알렸다. 개소식엔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와 테클라 발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환경부장관도 참석했다.

유럽연합(EU)은 2031년부터 배터리에 코발트 16% 등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2025년 80억 달러(10조원)에서 2040년 2089억 달러(274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SNE 리서치). 이날 솔츠 총리는 “자동차의 미래 필수 요소인 배터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21일(현지시간)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재활용 공장 개소식에 참석한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현장에서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 맨 왼쪽은 올라프 칼레니우스 벤츠 CEO. (EPA=연합뉴스)

하기 위해선 재활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벤츠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원료 공급부터 생산까지 배터리 벨류체

인 전반에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을 의식한 듯 벤츠가 내재화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을 상세히 공개했다. 당시 화재 이후 벤츠가 세계 10위권 배터리업체인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최고급 전기차에 탑재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선 벤츠 차주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벤츠는 배터리 연구·생산은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재활용은 쿨펜하임에서 한다는 ‘배터리 메이드 바이 벤츠’를 강조했다.

쿨펜하임(독일)=최선욱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해리스·트럼프, 공약 가열... “라틴계, 경합주 승패 결정할수도”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라틴계 유권자를 향한 막판 표심 공약이 가열되고 있다.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했던 라틴계 유권자들이 올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는 등 표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나아가 초박빙 대결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에서 라틴계 남성 유권자는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유권자 그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도월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미국인 지도자 및 유권자들과 타운홀 이벤트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히스패닉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 조사를 조금 전에 봤다”면서 “이제 14일 남았으며 우리는 큰 승리 파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선 안 된다”라면서 “만약 우리가 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없을 수 있다”고



라틴계와 타운홀미팅 하는 트럼프

[도널(플로리다) 로이터]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며 베네수엘라를 거명한 뒤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체외인공수정(IVF)에 계속 찬성했음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이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그녀

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면서 “그녀는 지능지수(IQ)가 낮고 느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누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냐. 그는 적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말했다.

‘내부의 적’은 사실상 정치적 반대진영을 가리키는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언론 인터뷰 외에 다른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 “그녀는 지금 자고 있어서 선거 운동하러 갈 수가 없다”면서 “선거가 14일밖에 남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늘 정말 세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그녀는 오늘 오프(off-휴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에 참석한 밥 우나누고 야푸드 최고경영자(CEO)는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인 카말라를 ‘케 말라(Que Mala)’로 발음했다.

이 말은 스페인어로 ‘매우 나쁜’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각각 타운홀도 개최한 바 있다.

라틴계는 2020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9%를 차지했으며 이들 가운데 63%는 당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USA투데이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라틴계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49%)을 해리스 부통령(38%)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가 최대 18%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크고,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에 있는 다른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 지지에서 앞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다만 라틴계 유권자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2020년 대선 때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및 트럼프 대선캠프는 경합주에서 민주당 지지가 약화할 경우 라틴계 남성 유권자의 투표가 승패에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심봤다’ 아칸소주 대량 리튬 발견

“전세계 수요량 웃돌아”

중남부 아칸소주에 현재 전 세계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의 리튬이 발견됐다고 지질조사국(USGS)과 아칸소주 정부가 21일 발표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USGS 소속 연구원들은 수질 테스트 및 마신 러닝을 이용한 연구 결과 아칸소주에 형성된 ‘스맥오버 지층’ 일대에 약 500만~1천900만톤 가량의 리튬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의 리튬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 일대에서는 이미 엑손모빌을 포함한 몇몇 에너지 기업들이 리튬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번에 리튬이 대량으로 발견된 스텍오버 지층은 석유와 가스 등 다른 천연자원도 풍부해 과거부터 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던 지역이다.

당국은 이 지역에서 다른 에너지 자원을 추출하고 남은 소금물에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리튬이온 배터리 [로이터]

돌입해왔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핵심 소재로 쓰이는 리튬은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광받는 자원이다.

현재 전 세계 리튬의 대부분은 호주와 남미에서 생산되며, 생산된 리튬의 가공 및 제조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국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지원해왔다.

데이비드 애플게이트 USGS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리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미국 내 생산 증가 가능성은 고용 및 제조, 공급망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의 ‘투개표 전쟁’... 대선 초접전시 2라운드 예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남부의 최대 경합주 조지아주는 수면 위 아래에서 동시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현장 방문 등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벌어지는 사이 물밑에서는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불신과 연결된 투개표 절차 관련 양 진영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포린프레스센터(FPC)가 주관한 대선 경합주 현장 방문 외신 취재단의 일원으로 21일 조지아주 선거관리담당자와 선거의 사전·사후 과정을 감독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열린 선거전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열한 ‘투개표 전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투개표 절차를 둘러싼 공방의 출발점은 결국 4년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및 뒤집기 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지아주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청사

약 0.2% 포인트(1만1천여 표)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뒤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재검표까지 진행된 끝에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州) 총무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부정선거’ 주장까지 폈다.

이어 대선 다음해인 2021년 조지아주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부재자 투표를 한층 엄격하게 만들고, 사전 현장 투표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거 사무에 대한 주(州)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선거법

(SB202)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대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실무 총책임자인 가브리엘 스탈링 주 총무장관실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날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투표를 막는 법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스탈링은 특히 법안이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을 확대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사기’ 의혹 제기로 인해 흥역을 치른 그로서는 부정 투표가 이뤄지기 한층 더 어렵게 만든 SB202야말로 11월5일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있을 수 있는 논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로 여길 수 있겠다 싶었다.

반면 같은 날 외신 기자단과 만난 민간 단체 ‘공정한 싸움을 위한 행동’(Fair Fight Action)의 맥스 플루그 래스 홍보국장은 “SB202는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술임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술임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2025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페어팩스, VA
703-865-8788
엘리콧 시티, MD
410-995-8074



문로리
703-895-7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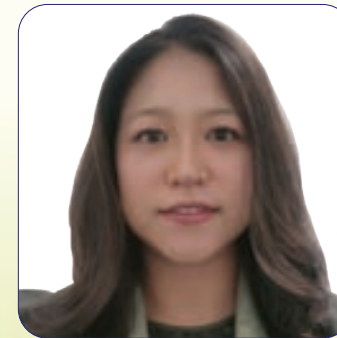


장미원
703-486-6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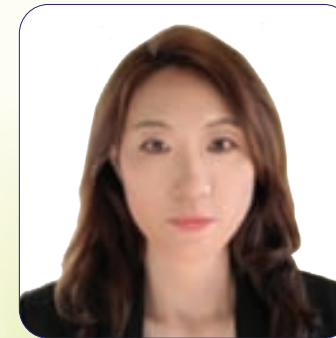


이린다
443-515-8522

리치몬드/
뉴포트 뉴스/
버지니아 비치, VA
804-464-366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804-299-1150



최비양카
757-869-0311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스탑 재정 서비스를 UNI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VA 페어팩스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VA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VA 뉴포트뉴스	700 Tech Center Pkwy. Suite 200, Newport News, VA 23606
VA 버지니아 비치	249 Central Park Ave. Suite 300, Virginia Beach, VA 23462
MD 엘리콧 시티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일본 젊은층, 한국어로 ‘대박’ ‘최고’ 쓰는게 최고 핫한 유행”

“윤석열 대통령의 솔 실력이 엄청나다고 기사다 전 총리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사다와 직접 솔 실력을 겨뤘던 적은 없지만 나도 꽤 강한 편인데...”(이시바 일본 총리)

“아, 그래요. 기사다 전 총리는 사케를 좋아하고, 난 맥주를 좋아했는데, 하여간 언제 우리 둘도 한번 같이합시다.(웃음)”(윤 대통령)

지난 10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서 열린 첫 대면에서 한·일 두 정상의 ‘케미’는 좋았다. 적당한 농담을 섞어가며 의기투합했다. 지난 1일 기사다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한국 내 평가는 일단 좋은 편이다. 윤 정부 들어 급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의 큰 틀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주일대사로 만 2년간 재임하며 이 변화의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한 윤덕민 전 대사를 만났다. 그는 일본 젊은이들의 변화부터 소개했다.

“요즘 일본 젊은 층에선 대화 중간에 ‘대~박’이라거나 ‘최고!’란 한국말을 넣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야 멋있다고, 폼난다고 여긴답니다. 심지어 속어인긴 하지만 ‘졸라’라는 단어를 말끝마다 씁니다. 참, 대단한 변화죠.” 물론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이 기회이자 고비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 정권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이시바 정부가 조기 소멸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귀임한 윤 전 대사에게 이시바 신임 총리의 생각, 한·일 관계의 나아갈 방향, 한국 대일외교의 문제점을 물었다. 라인 사데, 7광구 문제의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도 들었다.

이시바, “핵 무장 말고 핵 공유”

“이시바 총리에 대한 인상은. ‘네 번 만났다. 진지한 인물이다. 아마 요즘 일본 지도자급 정치인 중 가장 전향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번은 내가 ‘나토가 핵 공유를 하듯 한·미일이 동해 상에 공동으로 핵잠수함을 공유 관리하며 서울이나 도쿄가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면 어떨까’란 질문을 던지자 큰 관심을 갖고 호응하며 설명하더라. 그는 한·일이 독자 핵무장하기 보다는 중국 등 주변국에 주는 충격을 줄이면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컸다.”

“한국 내에선 그에 반발하지 않을까. ‘한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본의 한국 G7 가입 반대→ 지지 변화 움직임에 놀라워 한·일 정상, 미 대선 직후 새 당선인 함께 찾는 건 어떨지 7광구는 판도라의 상자... 한·일 정치적으로 신중 접근해야 대일 외교만 책임 묻는 건 문제, 그러니 최전방이 약해져



지난 16일 인터뷰에 응한 윤덕민 전 주일대사는 “1980년대 초 유학생 때와 40년 지나 대사로 재임했던 당시의 일본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계속 잔잔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서 균형을 취하는 게 지혜인 양 생각했지만,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하는 세상이 됐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도 대선 후 고립주의 성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외교적 활로가 있을 수 있을까. 이시바가 얘기하는 아시아 판 나토 구상이나 핵 공유 구상이 당장 가능한 이슈는 아닐지 모르지만, 방향성으로 본다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시바는 다음 달 5일 미 대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당선인과 만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누가 당선되건 이틀 시일 내에 만나는 게 좋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함께 미 당선인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2의 캠프 데이비드’가 되지 않겠는가.”

수소 원자력 포괄 한·일 FTA 필요

“내년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뭐가 성사됐으면 좋겠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같은 선언이 상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일 관계를 제도화하고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0주년을 맞아 현행 G7에 한국-호주가 들어가는 G9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의 외교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G9 표준의 방향성이 설정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방의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이 찬성할까.”

“물론 부정적 흐름이 아직 있긴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야치 쇼타로 전 국가안전보장장관이 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G7 가입을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참석한 기사다 정부의 핵심 인사까지 갈

은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 일본 내 전반적 흐름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경제 분야에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 다자간 협정인 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면 같은 효과가 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FTA로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 안에 첨단기술 분야의 경제안보 관련 조항도 넣고, 수소나 원자력 분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7광구 공동개발 문제는. ‘아직 큰 진전은 없다. 내년 6월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던 협정을 계속 이어갈지 혹은 종료시킬지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한 시한이다. 다만 협정 이후 국제해양법 변화로 7광구 관할권이 ‘중간선 기준’으로 바뀐 만큼 일본 입장에서 협정을 깨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일·중 간에는 뚜렷하게 확정된 기준선이란 게 아직 없다. 또 우리가 7광구 협정에서 ‘대륙붕 연장선 기준’을 주장하면 7광구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중국과 접하는 서해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는 ‘중간선 기준’을 주장하고 있기는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일본에 내세우는 논리를 한·중 간에 대입시키면 우리가 서해를 대부분 잃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일본도 중국의 개입을 원치 않는 만큼 한·일 관계가 좋게만 유지된다면 굳이 협정을 종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관계가 악화하면 과거 선언을 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어업협정 때도 그랬다.”

원폭 위험비 한·일 공동 완화 문물

“지난 2년 재임 중 가장 문물하고 인상에 남는 장면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원회에 한·일 두 정상이 함께 헌화한 장면이다. 당시 우리 쪽에서 일본 측에 ‘이런 걸 좀 일본 총리가 우리에게 해줬으면 한다’는 리스트를 작성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쉽지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헌화 총리로 옛 서대문 형무소(현 서대문 독립공원)를 찾았고, 2010년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매우 구체적 사과를 담은 간 나오토 총리의 ‘간담화’가 나왔지만, 우리 국민이 그런 건 별로 기억을 못 한다. 진정성을 별로 는

까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도 좀 열린 마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이 일본에 불만이 있듯, 일본은 한국에 불안을 느끼는데. ‘위안부 합의 반복,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란 프레임이 일본 내에 생겼고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히 스며들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책임 중 있었던 라인 문제의 진실은. ‘우선 데이터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일본과 한국에 차이가 있다. 한국 내에서 이걸 마치 일본이 우리 역사뿐 아니라 기업도 강탈하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만든 건 아쉽다. 다만 라인 사태를 계기로 경제안보 이슈에 우리의 대비태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일본의 경우 어떤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그 기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90도로 절하고 사과하는 문화가 있다. 네이버는 그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해주길 원했던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일본 내 여론이 들끓었고, 그 결과 이런 결과로 연결된 것 같다.”

“그래도 일 총무성이 지분 조정을 거른 건 건지 나치하지 않았나.”

“우리도 일 정부에 그 점을 계속 물었다. 총무성 담당자의 답변이 인성적이었다. ‘그건 내가 실수했다고 하더라.’

우리 외교 최전선은 도쿄인데...

“우리 대일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런 비유를 해 본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부활한 건 우리 국민 안전에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 그런데 그것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대일 외교는 조그마한 일에도 책임지라고 하고, 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대일 외교 담당자들이 위축되고 지원도 안 한다. 난 우리 외교의 최전선은 도쿄와 베이징이라 생각한다. 요즘 국정감사를 봐도 외교 문제의 60% 이상이 대일 외교 관련 아니냐. 최전방에 보내야 할 좋은 인재들을 후방에 많이 갖다 놓으니 최전방이 약해진다. 최전방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책임 중 라면집 도장 개기가 화제였는데. ‘취임 전 주일 미국 대사가 열차 타는 장면을 SNS로 내보내며 공공의료를 하길래 난 라면집으로 했다. 유학 시절 단골집 ‘라면 지로’로 시작했는데 댓글이 무려 1000개가 넘게 달렸다.”

김현기 논설위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펀리 지역]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윤·한, 각자의 길 걷는다... '김건희 특검' 수사 시작

용산, 추경호 중심 특검 방어선 구축
추 "의원 힘 모아 반헌법적 특검 막자"
친한 "차라리 세 특검법 내자" 온도차
"여당, 윤이나 한이나 갈림길"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내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한지아 수석대변인(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자의 정치적 길을 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여태 단일대오를 유지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명태균 의혹'을 추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 중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앞서 두 번째 특검법에선 4명이 이탈했었다.

우선 친윤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다녀간 당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만찬 자리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난번 재표결에서도 찬성을 찍은 건 2명에 불과하다. 원내지도부가 단속하면 재표결 가결 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특검법을 두고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부분의 의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역시 "여사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11월 15일)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정치공세인 만큼, 야당의 아킬레스건인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에 대해선 당에서도 같이 대응해 달라"고 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친한계는 이재명 리스크와 관계없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란표가 더 나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법이 가결되면 여권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어렵사리 부결시켜도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갇혀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해진다"(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것이다. 그래서 친한계 일각에선 "차라리 공정한 특검법을 먼저 내놓자"는 주장마저 검토된다. 이미 순직해병 특검법 때 논의됐던 대법원장 등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차 특검법'을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균열이 단순히 특검법 처리를

넘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분화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표가 오랫동안 공들여 제안한 기조 변화를 윤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108석 여당 전체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의 질문 위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화는 못 끝냈어도 보수층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보였다"며 "향후 여권의 분열이 가속화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두 개의 야당을 상대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에 대한 압박과 회유의 2중 공략을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다. 한 대표도 결단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라고 말했다. 물밑으로 특검법 내용이나 방식을 놓고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말했던 제3차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문제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은 좀 빼달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면 협상은 가능한 것 아닌가. 이 대표도 그런 취지로 발언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오현석·이창훈·성지원 기자

용산 "여사 살 많이 빠지고 누워만 있어"

대통령, 한동훈과 회동서 상태 언급
"아내가 힘들어해, 활동 더 자제할 것"
대통령실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22일 대통령실이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81번 면담'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이에 대한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살이 많이 빠지고, 관저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여권 인사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저러고 있으니 여사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멀쩡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김 여사는 이

미 대외활동을 즐겼다. 10·16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도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참석했던 경찰의 날 기념식(지난 21일)에도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개된 것이 가장 최근 모습이다.

허진 기자

명태균 리스트 지목된 이연주 "본질 흐리지 말라" 김두관 "기억 없다"

강해경 '정치인 27명 리스트' 파장
야권 인사 포함에 야당 '순수성 의심'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된 야권 인사들은 22일 "몰타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야권 일각에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경남 정치인들과 광범위하게 연루된 만큼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해

경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변호인을 통해 '명태균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명씨와 여론조사 등으로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이다.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친구 여권 인사들 외에도 경남 출신 이연주 민주당 의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간 야권 인사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연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이라며 "관계없는 정치인을 올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 용인정이지만, 부산 출신으로 2020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부산·경남권에서도 활동했다. 경남 양산율이 지역구였던 김두관 전 의원은 통화에서 "모 언론에서 '경

남 정치를 하는 분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물어와 연락처를 찾아보니 '명태균 시사 경남 회담, 2021년 5월 29일 차담'이라고 적힌 게 있었다"면서도 "만난 사실도 가물가물하고, 여론조사를 맡긴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여영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씨와 창원대 산업비즈니스학과 동기라 10여 년 전쯤 경남도위원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한번 맡긴 적 있다"면서도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리스트 운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적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장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강씨를 지난 15일 '공약제보보호대상자 1호'로 선정하고 대외 공세를 지속해 왔다. 다만 당 일각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씨의 발언을 무조건 따라가도 되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씨도 명씨와 공범인 셈인데, 공약제보자 신분으로 살아남으려는 건 아닌지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정부, 우크라이나 공격무기 지원도 검토... 북 “버릇 나쁜개” 막말

정부 ‘핵 기술이전이 레드라인’ 설정
나토와 공조 우선, 인력 파견 검토

“핵보유국 상대로 군사적 도발하나”
김여정, 한·우크라이나 싸잡아 비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말한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고 정부 소식통이 22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본 전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독자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일본·호주·유럽 연합(EU) 등 동맹·우방을 중심으로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형식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곽이 드러난 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맞서는 구심점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실효적 협력 강화다.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군 관련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이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측 포로 심문 또는 북한군 관련 첩보·동향 분석을 지원 하는 한국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단계별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한국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바이시스)’ 가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시스는 나토 본부에 소재한 바이시스 운영국(BGX)이 운용하는 전산망으로,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은 원격으로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 바이시스에 가입할 경우 북·러 간 불발 군사협력 등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효율적



남한강서 한·미연합 도하훈련 22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K1A2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다. 훈련에는 리본부교 등 공병 장비와 아파치 헬기, K1A2 전차 등 총 3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고,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 등 장병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뉴스1]

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북·러 간 무기·인력은 물론 기술 이전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폐지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기능을 이어받아 최근 출범한 다자제재 모니터링팀(MSMT)도 첫 표적으로 북·러 간 동향을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최후의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대러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파급력 큰 대응이다. 정부에

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걸 넘어선 안 될 선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면서도 ‘특수부대 파병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김여정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적 도발 사례는 최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미친 것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과 끼예브(키이우) 정권의 정신 나간 것들이나 할 짓”이라고 했다. 이어 “핵보유

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서울과 끼예브는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거론한 것에 비춰볼 때 최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북한군 1만 명 참전 공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여정은 특수부대 파병 여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평양 무기기 사태를 끌고 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박현주 기자



천리시아 군사전문 채널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인공기가 등장했다며 공유한 사진.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텔레그램 캡처]

미국 “북한군 파병 조사중, 사실이면 매우 위험”

백악관 “며칠내로 입장 밝히겠다”
북·러는 “근거없는 소문” 선 그어
유럽의회, 우크라이나 52조원 대출 승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나 보도와 관련해 진상을 계속 조사 중이며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은(우크라이나) 전장에 계속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드론 기술을 계속 들어오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공급받고, 이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러시아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했으며, 이달 초부터 러시아 해군 함정에 탑승한 약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극동 도시에 배치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등은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 파병

주장이 서방 측의 ‘부기맨’(아이들에게 겁줄 때 들먹이는 귀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중국·북한을 부기맨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대남 쓰레기 풍선과 관련한 노하우를 러시아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국방부 정보 소식통을 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1일 만났다. [EPA-연합뉴스]

용해 “러시아군이 최근 탈영한 북한군 18명을 붙잡아 억류했다”며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측에 군사적 목적의 풍선 활용법을 전수하던 이들이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22일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워싱턴=김영주 특파원, 이유정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불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간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row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SELFOTO STUDIOS 나의 사진관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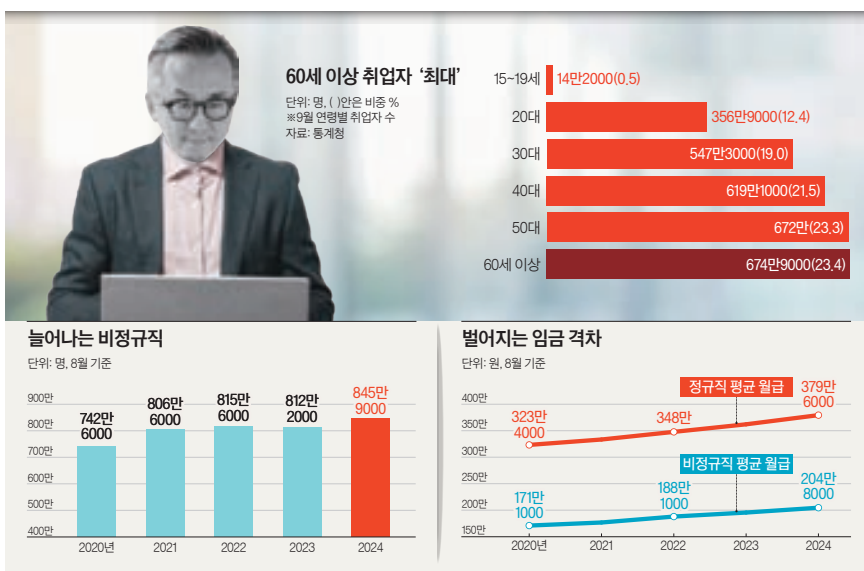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 60세 이상이 첫 1위 ... 정년연장 논의 속도

675만명 역대 최대 ... 50대도 제쳐
은퇴 대신 60세 이상 창업도 증가세
정년연장 땀 경험·노하우 활용 효과
경사노위, 연내 로드맵 마련 계획

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 취업자 중 가장 많아지며 고용시장의 주요 세대로 자리 잡았다. 정년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2000명 늘어나며 역대 가장 많았다.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대 취업자 수(672만 명)를 추월했다.

전체 취업자(2884만2000명)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50대 비중이 23.3%로 뒤를 이었고, 40대 21.5%, 30대 19%, 20대 12.4% 순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6%로 20대



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많아진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도 60세 이상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고령자가 돼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

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7.4%였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창업기업은 누적 65만4638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었는데,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은 7.3% 늘어나 8만9279개를 기록했

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창업이 감소했다. 7월만 놓고 보면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은 14%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생계 전선의 가장 앞쪽에 서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에서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가 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지난 21일 취임한 이종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60세 이상이 계속 일하며 소득 절벽을 겪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구직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바뀐 뒤 청년 고용

이 약 16.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체계를 운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미루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정년보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재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험 많은 시니어를 재취업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경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단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행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역대 최대' 정규직과 월급격차 175만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 38%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역시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최근 '최대 고용률' '최저 실업률'이라는 고용 호조에 가려진 그늘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이하 동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었다.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1383만2000명에서 1368만5000명으로 14만7000명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를 기록했다.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비정규직이란 얘기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38.4%)에 이어 비중이 두 번째로 크다.

비정규직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가 상존하는



일자리 통계상 '아픈 손가락'이다. 정규직보다 처우가 떨어지는 데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경우도 많다. 정부는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등) ▶시간제 근로자(주당 36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임 등) ▶비(非)전형 근로자(파견·용역, 1일 근로자 등)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처음 200만원을 넘겼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379만6000원)이 2007년 처음 200만원을 넘긴 뒤 17년 만이다. 정규직과 격차는 지난해 166만6000원에서 174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2017년부터 7년째 격차가 벌어졌다. 세종=김기환 기자

"DJ·클린턴·장쩌민·오부치의 화해·공존정치 다시 보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국제학술회의 커밍스·와다·박명림 교수 등 발표
"DJ, 협력외교로 평화의 기틀 마련"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박명림)과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가 올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2일 '화해와 공존의 세계지도자: 김대중·클린턴·장쩌민·오부치'를 주제로 특별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과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세계 평화에 앞장선 김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남북 긴장 상황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기에 미·중·일 3개국 지도자가 보여줬던 화해와 공존의 정치를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주요국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째) 등이 참석한 '화해와 공존의 세계지도자: 김대중·클린턴·장쩌민·오부치' 특별국제학술회의가 2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기틀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1세기 들어 세계는 기후변화, 전염병, 불평등 문제 등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두가 지구촌의 일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섭 연세대 총장은 "한반도는 전쟁과 대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간"이라며 "우리는 대결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던 신안군

선조의 얼과 정신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 발표는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장원링(張蘊嶺) 산동대 석좌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커밍스 교수는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이해한 적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파악하지 못해 의미 있는 협상 기회가 사라졌고 이는 역대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장쩌민 재임 기간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우호적인 이웃에서 협력 파트너로 전환돼 상호 신뢰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박현주 기자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팀

- ▶ 디씨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타운대 차로 10분거리
-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입주 가능
-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독점 리스팀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약속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ponsored by **삼다보험**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캡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우리말 바꾸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앞과 상반되는 말을 할 때도 종종 쓰인다. “그가 웃었다. 그런데 나는 슬펐다”처럼, ‘-는데’도 ‘그런데’와 비슷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다음처럼 두 문장을 이어 준다. “그가 웃었는데 나는 슬펐다.”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의 ‘그런데’와 ‘-는데’에는 ‘도’를 붙이는 일이 흔하다. 그러면 이 말들이 강조된다. “그가 웃었다. 그런데도 나는 슬펐다.” “그가 웃었는데도 나는 슬펐다.” 이처럼 ‘도’가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진다.

“그럼에도”도 비슷하다. “그런데도”나 ‘-는데도’처럼 ‘그럼에도’도 뜻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런데도’와 ‘-는데도’가 일상의 대화에서나 글에서도 자유롭게 쓰인다면 ‘그럼에도’는 주로 글에서 쓰인다. 이 말들은 ‘불구하다’와 때때로 어울리는데, 이때는 거의 글에서 나타난다. “그가 웃었다. 그런데도(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펐다.” “그가 웃었는데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펐다”는 주로 글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이다. 말로 할 때는 굳이 ‘불구하다’를 넣어 문장을 늘리지 않는다. 글에서도 ‘불구하다’를 넣으면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장의 간결성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간결성을 넘어 하나의 관용구가 됐다. 그렇더라도 ‘불구하고’를 빼면 문장은 더 간결해진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이민자 위협하는 ‘프로젝트 2025’



이종원
변호사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2025’가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세력에 권고하는 정책 청사진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2025년 집권에 대비한 정책 권고안이라는 것이 정가의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프로젝트 2025’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2025’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인들에게 밀접한 이민 및 보건 의료 정책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2025’는 연간 84만여 건이 접수되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결혼 영주권, 부모나 자녀 초청 영주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비자 쿼터의 축소도 권유한다. 숙련직용 H1-B 비자와 비숙련 계절노동자용 H2-A, H2-B 비자, 학생 비자, 난민 신청 비자의 축소를 제안한다. 또한 국제 난민 등에게 부여되는 임시 추방보호지위(TPS)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민국 인력을 줄여 이민 케이스 처리 적체를 유발한 뒤 합법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

리는 이민국의 비자, 영주권 처리 속도가 한없이 늦춰져 사실상 ‘이민 울스톱’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대량 추방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AAPI 형평성연합(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사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프로젝트2025는 연방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도 사유지와 학교, 사업장, 심지어 종교 시설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군사작전 수준의 대량 추방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의료·보건 분야는 어떻게?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에는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인상, 오바마케어(ACA)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구호 대출 중단, 재난 선포 기준 강화, 연방 재난관리청(FEMA) 홍수 보험의 민영화, 국립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의 민영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피플스 액션 인스티튜트(People’s Action Institute)’의 술마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보험과 공공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민자의 악마화’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이 문서는 ‘불법 외국인’, ‘침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가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권력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인구 구성 변화로 그 힘을 잃게 되자, 행정 조치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사회는 아직 이민자 중심의 커뮤니티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민 축소, 비자 쿼터 축소, 비자발급 중단,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2025’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프로젝트 2025’가 절대로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열린광장

‘출필고, 반필면’



윤재현
전 연방공무원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어디 있어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다. 내가 집을 나온 지 거의 두 시간이 되었다. 쇼핑 나온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더디 가게 마련이다. 아내는 요즘 내가 운전하다 사고라도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신없이 쇼핑하다 깜빡 잊고 아내에게 전화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떠날 때는 반드시 말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보고하라(出必告, 反必面)’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교육받은 사람이... 요즘은 휴대전화 시대니 늦어지면 중간보고도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출필고, 반필면’과 중간보고를 부탁했다. 두 딸은 말을 잘 들었다. 어디를 다녀오면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부모들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 이외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들은 나를 닮아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다. 아들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대학에 다녔다. 언젠가 여름 방학에 집에 온다고 했다. 친구 차에 동승하고 아침 9시에 출발한다는 전화

가 왔다. 아무리 늦어도 오후 5시쯤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데 밤 11시가 되어 오지 않았다. 분명 큰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안절부절못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 새크라멘토 본부에 전화해 사정 이야기를 했다. 다행히 그날 5번 도로에서 대형 자동차사고는 없었다. 자정이 지나서 아들이 도착했다. 5번 도로 대신 해안 도로를 따라 내려오느라 늦었다는 것이다. 공중 전화로 늦는다고 알려라도 줄 것이지... 몇 년 후 그 아들이 하와이 큰 섬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이미아 호텔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 히로 공

항에 내려서 와이미아로 가던 도중 차 사고가 있었다. 도로 옆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히로 경찰서로 전화했다. 히로와 와이미아 사이에서 한 건의 차 사고도 없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당신 아들과 신부의 행방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와이미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중간에 몇 군데 들려서 사진을 찍느라고 늦었다고. 내가 미리 겁을 먹었던 것이다.

요즘은 아들이 한 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다. 그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무슨 깨달음이 있었나 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간에도 ‘출필고, 반필면’은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다. 늦으면 늦는다고 중간보고도 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예의범절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언제, 어떻게 사야할까?	 신디 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집 보험 점검 필수	 데니얼 유 내집 지등 진단 및 라이센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	---	--	---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위스타인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조용필 11년만에 정규앨범 '20' 발표
 젊은 세대 위한 '응원메시지' 담아
 모던 록 등 다양한 음악 장르 실험
 "지금까지 낸 노래 중 가장 많이 연습
 도전정신이 중요, 지금도 창법 연구"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들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응원가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에 접어든 가왕 조용필(74)이 젊은 세대를 위한 응원가를 마지막 정규앨범에 담은 이유다.

그는 2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11년 만의 정규음반인 20집 '20'(사진) 발매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른 형태로 노래는 계속 내겠지만, 정규 앨범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면서 타이틀곡 '그래도 돼'를 소개했다. 등을 토닥이는 듯한 따뜻한 노랫말에 부드러운 우먼서도 힘찬 가왕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모던 록 장르다. 4분 27초의 러닝타임에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녹였다.

총 7개 트랙으로 꾸려진 신보 '20'에는 전반적으로 응원가가 많다. '그래도 돼'에 앞서 선공개 싱글로 발표한 '세레게티처럼'은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는 내용을, '찰나'는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잡한 일상을 떠나 꿈을 펼쳐보라는 '필링 오브 유'와 자유롭게 너만의 길을 가라고 외치는 '닥도' 지난해 선공개된 뒤 이번 음반에 함께 수록됐다.

2030에 주는 가왕의 위로 "기죽지마, 끝까지 해봐"

조용필은 자신의 음악 인생을 '도전'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새 앨범에는 통통 튀는 일렉트로닉 팝과 모던 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됐다. "가수라면 장르를 따지지 않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오랜 지론이다. [사진 YPC]

조용필은 젊은 세대에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로 "무엇이든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것을 완성할 수 있다. 힘들어도 일단 끝을 내야, 아주 작더라도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무조건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래도 돼'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선 "스포츠 경기의 패자에 감정을 이입한 노랫말"이라고 설명했다. 올 봄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다 패자들의 심정이 궁금해졌다고 했다. 이후 조용필이 작사가 임서현을 만나 "나 같으면 '다음에 이길 거니까 지금은 그래도 돼'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 직선적인 응원의 가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

조용필은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

애'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 장 돌파, 누적 앨범 1000만장 최초 달성 등 무수한 기록을 썼다. 2013년에도 19집 '헬로'의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데뷔 55주년인 지난해엔 잠실주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열었다.

56년의 음악인생 내내 승리자였을 것만 같은 그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나도 패자인 적이 있었어요. 1992년에 TV 활동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한 후 콘서트에 빈 좌석이 늘기 시작했죠. 1990년대 말에는 지방 공연에 가면 2층이 텅 비었을 정도였고... 패배감을 느꼈던 그때의 나에게 '그래도 돼'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뉴진스와 협업했던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이주형 감독이 맡았다. 남편 박근형, 아들 변요한, 딸 전미도를 둔 이씨가 죽기 전 자신의 행복한 기억을 돌아보는 드라마 형식이다. 아무리 캄캄한 삶이라도 가장 가까이엔 당신을 응원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메시지를 영상에 담았다.

싱글 '필링 오브 유'에서 1992년생 추수 작가와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든 데 이어 돌고래유괴단과 손을 잡은 조용필은 "재능있는 좋은 후배들은 눈여겨 보는 편"이라고 했다.

조용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전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지금도 창법을 연구하고 여러 가수를 보면서 좋았던 부분은 따라해 본다. 그런 것이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다"고 덧붙

붙였다.

신보에는 그간 조용필이 연구한 여러 장르들이 들어있다. '타이밍'은 통통 튀는 일렉트로닉 팝 록 장르로, 랩처럼 빠른 엣박의 멜로디가 매력적이다. '왜'는 조용필이 지금까지 낸 노래 중 가장 오랜 기간 연습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그는 "몇 개월을 붙들고 있었다. 가수 생활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건 처음이다. 가성의 사용, 전달력 등을 굉장히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조용필의 20집 CD 음반은 다음 달 1일 발매된다. 조용필은 신보 발매를 기념해 다음 달 23~24일과 다음 달 30일~12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돐에서 '20집 발매 기념 조용필&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연다.

황지영 기자

오만원권 보안기술로 만들었다... 한뼘한뼘 재현한 '인왕제색도'

(경제 정성이 그린 국보 산수화)

조폐공사 '요판화 제작' 프로젝트
 지폐 만들 때 쓰는 인쇄기법 활용
 산수화의 농담 절묘하게 구현해
 우리 문화유산 소재 상품화 첫 사례

비 갠 뒤 안개가 피어오른 인왕산의 경치를 호방한 붓놀림으로 담아낸 겸재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 2021년 국가에 기증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국보 산수화다.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 소속 신인철(57) 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석달 동안 인왕제색도를 수십만개의 점과 선으로 해체·재구성해 그렸다. 다시 석달간 이 밑그림을 특수합판에 일일이 옮겨 새기고 깎아냈다. 이렇게 완성된 요판(凹版, 오목판)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눌러 찍자 기암괴석의 농

담(濃淡, 짙고 묽음)이 절묘하게 구현된 '인왕제색도 요판화'가 탄생했다.

지난 17일 인왕제색도 요판화가 시중에 예약 판매되기 시작한 날, 조폐공사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서울 마포구 오로디움관에서 신 연구원과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가성현(55) 책임연구원을 함께 만났다.

요판인쇄란 한국조폐공사가 은행권을 찍어낼 때 쓰는 고도의 인쇄기법이다. 지폐(천원, 오천원, 만원, 오만원) 표면을 만들 때 오목도돌 느껴지는 촉감이 이 특수기술 때문이다. 특수 보안 잉크 등이 사용돼 위변조 복제가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인왕제색도 요판화에도 이 같은 화폐 보안기술이 총동원됐다.

요판작업은 1mm도 채 되지 않는 미세한 선과 점을 구사해야 하고 화폐 보안기술과 직접 연관돼 있어 전수가 제

한적이다. 조폐공사 안에서도 이틀만 '장인'급으로 구사 가능하다고 한다.

이날 대형(824×546mm) 300점, 중형(526×356mm) 500점, 소형(310×196mm) 2000점이 한정 출시된 인왕제색도는 조폐공사와 한국박물관문화재단을 통해 예약 접수를 받자마자 빠르게 팔려나가고 있다. 소형 버전은 MZ세대의 호기심을 겨냥해 현미경급 렌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문자와 인왕산 호랑이 그림 등을 심었다. 1996년 나란히 공채 입사한 이들은 원래 서양화를 전공한 미대 출신이다. 대전시 초대작가(신인철) 등 개인 이력도 있지만 대표작은 우리 지갑 속에 있다. 신 연구원은 2005~2006년 새은행권 제작 때 천원권과 오천원권 초상, 가 연구원은 같은 기간 오천원권 초상도와 2008~2009년 오만원권 초상(신사임당)을 담당했다. 표준영정을 기준 삼아



한국조폐공사 소속 디자이너로 5만원권 신사임당 초상을 담당한 가성현 책임연구원(오른쪽)과 '인왕제색도 요판화'를 작업한 신인철 연구원이 작품을 들고 함께 포즈를 취했다. 김경록 기자

화폐 용도의 원화를 그린 뒤 요판 공정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이 개별 '작품'을 전담하는 구조다.

두 사람이 동서양 명화를 요판화로 작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홍보·기념품 용도로 이중섭·박수근의 대표작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등을 선보여서 호응을 얻었다. 인왕제색도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측과

협업해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상품화에 나선 첫 사례다.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시 때 원화를 감상했다는 신 연구원은 "비 온 후 운무(雲霧) 표현이 가장 고민스러웠는데, 밝은 부분은 점과 점 사이 간격을 넓게 했고 어두운 부분은 촘촘하게 새기면서 잉크가 많이 스며들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잉크와 먹의 유사성 때문에 서양 채색화보다 한국 수묵화가 요판화에 훨씬 잘 맞는 것 같다"고도 했다.

조폐공사는 앞서 특정 스타의 팬덤을 겨냥해 요판화를 적용한 '순흥민 메달' 'BTS 지폐형메달' 등을 선보여 안판시킨 바 있다. 우진구 홍보실장은 "신용카드와 모바일페이 등이 확산하면서 지폐를 찍어내는 게 예전같지 않아서 조폐공사 나름의 새로운 매출 창구를 찾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요판화도 제작에 들어간다. 강해린 문화선임기자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시 설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 큰 후폭풍이 몰아닥칠 조짐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을 도출할 계기란 기대를 받았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돌아섰다. 회동 뒤 양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종전과 달라진 게 조금도 없는 듯하다.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의 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 지난 4일 국회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4표 더 이탈하면 치명상인데 전향적 조치 없이 주요 고비 때마다 터닝 포인트 놓치며 화 키워

왔다. 다음 표결에서 이탈표가 불과 4표만 더 나오면 정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런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무런 전향적 조치 없이 그냥 여당에 지켜달라고만 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 여당 의원들도 전부 독립적인 정치인인데 민심이 계속 나빠지면 동요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나. 이런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니 참으로 안이한 상황 인식일 뿐이다.

한 대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며 쇠신을 요구한 ‘김건희 라인’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적어서 비서실장에게

알려주면 잘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해 뚜렷한 불벌이 없으면 교체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의 문제와 법의 문제를 혼동한 것이다. 국민은 ‘김건희 라인’이 위법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인사들을 통해 김 여사가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 줘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임명할 뜻이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회동이 끝난 뒤 곧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앞으로 한 대표는 건너뛰고 국회 일은 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공개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와 불화를 키우는 게 정권에 보탬이 될지 매우 의문이다. 이렇게 된 이상 여당 중진들이라도 중지를 모아 대통령을 만나 해법을 권고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은 주요 고비 때마다 터닝 포인트를 놓쳐 화를 키웠다. 명품백 사건이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등이 그런 경우다. 이번에 명태균씨의 카톡 폭로로 메가톤급 이슈가 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심각한 형국이다. 이번에도 실기하면 다음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60대 취업자 사상 최대...제도적 뒷받침 준비할 때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675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나이 많은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층의 취업 의지가 강한 데에 노후 준비가 덜 돼 있고 소득이 높지 않은 탓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2위를 달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빈곤 탈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까지 매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이나 대중교통 혜택은 미루되, 노인에게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냈다. 지금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을 따른 것이다. 43년이나 지난 낡은 기준이라 현실과 안 맞는다.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지금은 83세다. 지금 노인은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았으며 더 일하고 싶어 한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과도한 복지 부담을 줄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겨 노인 빈곤층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 63세까지 올라갔고 2033년엔 65세부터 받게 된다.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넘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소속 공무원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년 연장은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지금 같은 호봉제 위주의 급여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 이런 직장은 대체로 청년층도 원하는 좋은 일자리들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 일본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노력 의무화’라는 형태로 법적 권고를 했고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놀라운 위기 자초 능력

고정애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적 메시지다. 지난 21일 대통령실이 촬영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메시지는 오독(誤讀) 불가였다. 먼저 악수다. 10년 전 한국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들에게 건넨 악수가 떠올랐다. 교황의 시선은 오롯이 당사자에게 머물렀다. 잘 나였는데 영원했다. 총일감에 차오르다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다. ‘이분이 교황이라 다행이다. 정치인이었다면 패권을 능가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눈은 내달렸다. 외면이었다.

‘산책’도 그랬다. 한 프레임 안에 들어 있어야 했다. 서천 화재 때처럼 말이다. 문재인-김정은, 트럼프-김정은의 산책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로 한 대표를 에워쌌다. 배척이었다. 차담 사진은 더 그로테스크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만남은 소수일 경우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다. 이번엔 좁다란 테이블에 윤 대통령이 상석에 앉고, 반대편에 한 대표와 배석자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붙여 앉게 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은 윤 대통령이 팔을 벌린 채 양손으로 테이블을 누르며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 대표를 쏘아보는 장면이었다. 분노였다.

한때 윤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작가 오진영은 이런 인상평을 했다. “나한테 왜 그래요? 말해 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대통령실에선 처음엔 멀쩡한 회동인양 포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면담”이란 말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를 내보내면 안 됐다. 설령 윤 대통령이 불쾌했다라도 이런 이미지를 내보내면 안 됐다. 민심을 전하는(윤 대통령이 수긍할 수 없더라도)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천대한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아니 만 나느니만 못하게 됐다.

이번에도 재차 확인된 건 윤 대통령의 이성을 압도하는 감정 상태다. 이토록 지속적으 대통령을 기분을 알게 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 이래 처음이다. 공개 석상

에서 속된 표현을 안 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많이 잡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에게 물어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을 격하게 깨곤 했지만 그런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았다. 숨소리조차 고도의 정치여야 한다는 현실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 설명 또는 해명하면 될 일들이 논란으로, 위기로 커지고 있다. 놀라운 능력이다. 대선 과정에서 그나마 ‘결단’으로 풀었다. 5·18 발언 사과도,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화해’도 그랬다. 지금은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

이번이 더 위험한 건 윤 대통령 통치의 특수성도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고집 피울 때마다 돌려세운 건 김건희 여사였다. 어쨌든 정무를 김 여사에게 외주(外注)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원만했다는데, 영상엔 외면·분노 북파병 속 국가전략 논의 절실한데 미봉조차 못한 한심한 여권 정치력

보니 대통령의 참모가 김 여사의 참모이고 김 여사의 참모가 대통령의 참모인 비정상 구조를 낳았다. 이젠 위기의 진앙에 김 여사가 있다. 김 여사식 정무가 곤란해졌다. 다수의 민심은 물론 여당 지지자도 그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더한 비난과 혐오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은 중상(中傷)이라고 감싸지만(그럴 근거도 있다), 믿어주는 이는 적다.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이 지금처럼 해선 부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쪽이다. 대통령부터 산 뒤에야, 그러려면 부인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한 후에야, 부인을 보호할 여력이 생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감정에 휘감긴 듯,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난감한 일이다.

21일 회동을 보고 진정 화나는 건 따로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란 외교적 격변기에 국민적 시선을 국가 대(大)전략 논의로 이끌어야 하는데, ‘미봉’하는 모양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돌, 특히 윤 대통령의 정치적 감수성 탓에 여전히 자기파괴적 ‘권력극’을 봐야 한다는 현실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oongAng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Advertisement for JoongAng Ilbo's digital newspaper. It features a QR code, the text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and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It also includes a testimonial bubble: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and a photo of a smiling man.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23,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덱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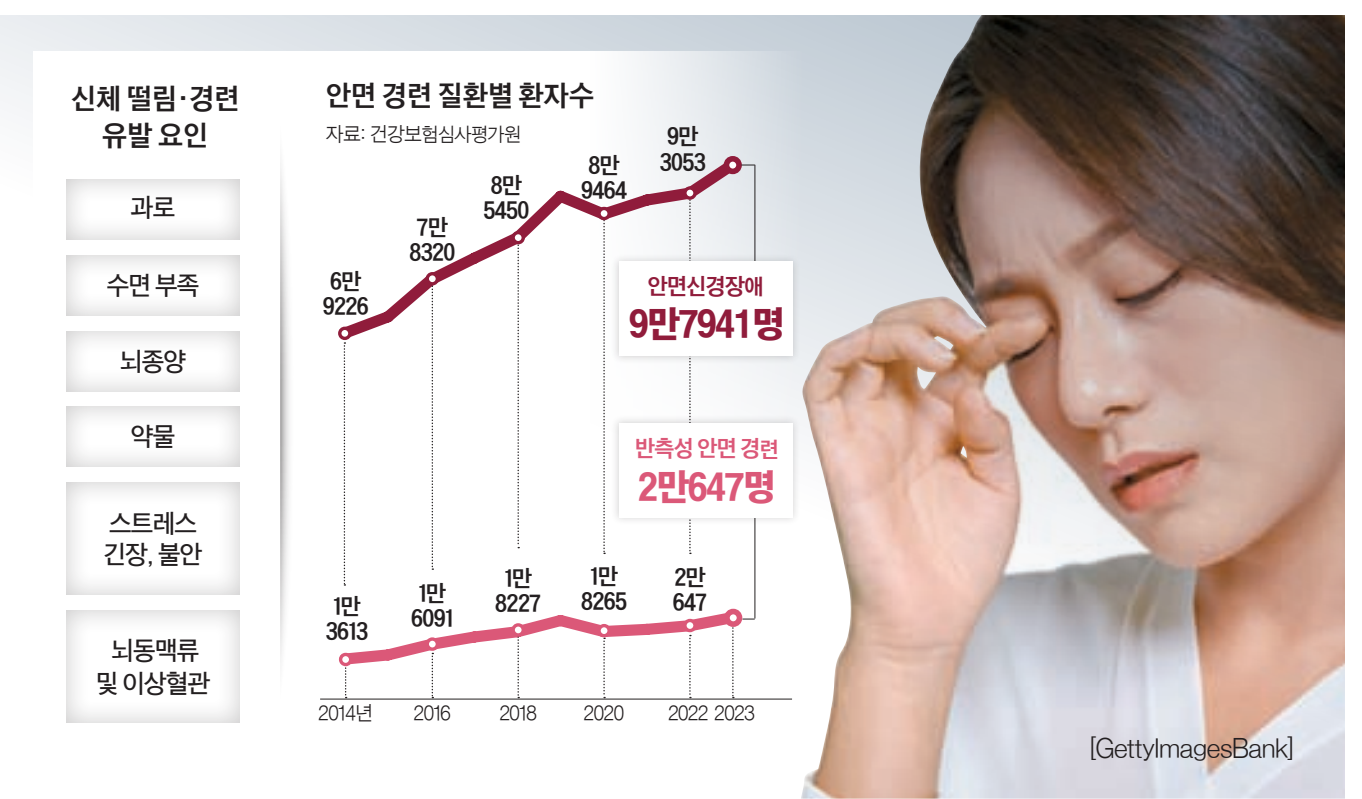
눈꺼풀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 과로·스트레스 해소가 먼저

누구나 한 번쯤은 얼굴 한쪽이 움찔거리거나 눈꺼풀 주위가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경험한다. 떨림이나 경련은 통증, 저림만큼 몸에서 흔한 증상 중 하나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경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9월 1만 4000명대(2023년 기준)이던 이런 안면신경장애 환자 수가 1만5000명대로 늘어나고, 이 추세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커피인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기기도 안면에 경련이나 떨림이 생기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마그네슘 부족'을 떠올린다. 실제 마그네슘은 골격과 치아를 구성할 뿐 아니라 근육의 이완·수축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다. 마그네슘 결핍 시 주요 증상이 근육 경련, 눈꺼풀 떨림, 손발 저림 등이다. 질병관리청도 '2016~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민의 45%가 '권장량 부족'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즘 안면 경련의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전진선 교수는 "얼굴 떨림·경련은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4~5배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된다"며 "하지만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해 안면 경련이 생기는 것은 옛날 얘기"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마그네슘 섭취량은 292.6mg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권장섭취량의 98% 수준이었다. 보충제를 섭취해서 나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현대인이 겪는 얼굴에 생기는 떨림·경련의 상당수는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때문이다. 커피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기기도 한다. 이때는 '안면성 근과동증'인 경우가 많다. 눈 주위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 신체 떨림·경련 유발 요인
- 과로
 - 수면 부족
 - 뇌종양
 - 약물
 - 스트레스, 긴장, 불안
 - 뇌동맥류 및 이상혈관



[GettyImagesBank]

잘 쉬고 수면 시간 늘리면 금세 회복
마그네슘 부족 가능성은 거의 없어
떨림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경련 심할 때 약물, 보톡스, 수술치료

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
어주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대부분 금세 나아진
다. 전 교수는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
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 상태에서는 근
육이 이완을 잘 못하고 국소적으로 근
과동증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는 증
상이 경미하고 어떤 병인을 가진 경우
가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다. 눈꺼풀이
쉴룩거리고 떨리는 것만으로 중풍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단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우선 떨림이 갑자기 생겨서 지
속하는 경우다. 단순히 '버그' 같은 신
경 신호 이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가 있을 수 있어서다. 전 교수는 "갑자
기 안면의 떨림이 생기는 건 머리 안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에도 불구
하고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다. 가벼운 문제라면 오래 가지 않는다.
2~3주 안에 자연히 가라앉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증상의 범위가 국한되지 않고
번져 나가거나 빈도가 잦아지는지 여부
다. 증상이 특정 부위에서 퍼진다는 것
은 악화한다는 의미고 쉽게 지나쳐선 안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다. 네 번째는 인지 저하 여부다. 떨림·경
련 증상과 함께 정신이 멍한 상태가 평
소보다 자주 있다면 검사가 필요하다.

안면신경장애 중 하나인 '반측성 안면
경련'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얼굴의 반
쪽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류정훈 기자
▶ 4면 '마그네슘'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생리 일정해도 양 많으면 자궁 질환 의심... 2030 HPV 감염 주의해야

키워드로 본 여성 건강 여성은 초경·임신·출산·폐경 등을 겪으며 평생 여성호르몬과 함께 살아간다. 10대 초·중반에는 에스트로겐 등 여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초경을 경험하고, 이때부터 40여 년 동안 월경을 한다. 2030대에는 임신·출산으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기도 한다. 40대 후반부터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다가 폐경(완경)을 맞으면서 이상지질혈증·골다공증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 세계 폐경의 날(10월 18일)을 계기로 생애주기별로 점검해야 할 여성 건강 문제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권선미 기자

초경 초경 시작하면 마지막 급성장기 대비 여아는 초경 2년 이내에 키 성장이 멈춘다. 초경 등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더 일찍 분비되고 뼈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마지막 급성장기를 보내고 성장판이 닫힌다. 일반적으로 초경은 뼈 나이를 기준으로 12세6개월에서 13세 사이에 시작한다. 강동성심병원 소아 청소년과 노유선 교수는 “초경이 빨라수록 성장판이 닫히는 시점이 빨라져 키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인이 됐을 때 또래보다 최종 키가 더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6개월마다 키 성장 속도, 2차 성징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초경이 10세 이전으로 매우 빠르다면 여성호르몬에 더 오래 노출돼 자궁근종 발생 위험이 크다. 성조숙증 치료 등으로 초경 시기를 늦추면서 자궁근종 위험도를 줄이고 키가 클 수 있다. 다만 초경이 시작됐다면 성장판이 열려 있는 남은 기간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한 성장호르몬 치료 등으로 최종 키를 키울 수 있다.

HPV 백신 2030은 HPV 감염에 취약 성(性) 접촉을 통해 확산하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도 주의해야 한다. HPV에 반복적으로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질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각종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HPV 감염은 성 접촉을 시작



“초경 일반적으로 12~13세에 시작 HPV 감염 땀 암 유발, 백신 꼭 맞아야 폐경 전신에 영향, 호르몬 치료 도움

한 다음부터 늘어난다.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 2~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은 HPV에 감염될 수 있다. 문제는 HPV 감염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를 중심으로 HPV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NIP 시행 전인 2003년 이전 출생자는 여성이라도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은주 교수는 “반복된 HPV 감염은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HPV 백신 접종을 통한 적극적 예방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국내 접종 가능한 세 종류의 HPV 백신(서바릭스·가다실·가다실9) 모두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16·18 고위험 HPV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 암 예방 범위는 최근 개발된 9가 HPV 백신이 가장 넓다.

가임력 결혼·출산 계획 불확실해도 30세에 가임력 점검 학업·취업 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면 남성인든, 여성이든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가 만 35세를 넘기면 가임력이 떨어져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속 정자를 만들어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평생 쓸 수 있는 난자가 한정적이다. 여성의 생식세포인 난자는 초경을 기점으로 매달 성숙한 난자를 하나씩 배출하면서 수가 줄어든다. 특히 35~38세를 기점으로 난자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난임은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생식의학 등 난임 치료 기술이 발전해도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차이를 보인다. 서울마리아병원 가임력보존센터 주창우 센터장은 “임신·출산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만 30세 전후로 난소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검사(AMH)로 가임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가임력을 살펴보고 비교적 젊을 때 난자 동결 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7일 월경 주기 일정해도 월경량 많으면 자궁 질환 의심 여성은 초경을 시작한 때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매달 월경(생리)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은 한 월경 주기당 ▶4~6일(평균 4.7일) 동안 ▶20~60mL(평균 35mL)의 출혈이 발생하는 월경을 한다. 월경 중 응고된 피덩이가 울컥나오고, 월경 기간이 7일 이상으로 길고, 수시간에 걸쳐 1시간에 한 번씩 패드를 교체한다면 월경과다증일 수 있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는 “월경량이 많은 월경과다증은 자궁내막증식증·자궁근종·자궁내막암 등 같은 자궁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 전문

의 진찰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경과다증은 마레나 같은 자궁내시시스템(LNG-IUS) 등으로 자궁내막의 증식을 억제해 월경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한번의 시술로 장기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궁의 구조적·조직학적 이상이 없다면 약물적 치료도 가능하다.

50세 그날 사라지면 골밀도 점검해야 폐경은 여성이라면 여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50세를 전후로 맞는다.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다가 어느 순간 끊긴다. 의학적으로는 마지막 월경 후 1년간 월경이 없다면 폐경으로 본다. 폐경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미란(대한폐경학회 회장) 교수는 “폐경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90%나 사라지면서 고혈압·고지혈증·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골밀도는 폐경 후 3~5년 내에 빠르게 소실된다. 폐경 증상의 양상·강도·빈도·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폐경 증상으로 일상이 불편할 정도로 힘들다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한다. 폐경 초기에 급격하게 감소한 여성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시도하면 폐경 증상을 완화하면서 골다공증 골절 등 폐경 이후 건강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기고 김남주 중의학 박사

전신에는 점막이라는 조직이 있다. 점막은 우리의 몸의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쟁에 비유하면 전신 면역은 세군, 바이러스 등 몸이 병원체에 감염된 뒤 싸우는 역할을 한다면, 점막 면역은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1차 방어선 같은 것이다. 점막은 비강, 구강, 비뇨기, 생식기관, 소화관, 호흡기 등 전신의 다양한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점막 성분은 수분이 아닌 살균 성분을 지닌 라이소자임, 면역 글로불린, 점성을 주는 뮤신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자연면역의 최전선에서 우리

병원균 막는 1차 방어선 ‘점막 면역’을 아시나요

몸을 감싸고 방어한다. 손이 더러워지면 씻어내듯 쉴 새 없이 새로운 점막이 흘러나와 미생물이나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되거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한방학적 개념에서는 이러한 점액은 진액(津液)에 속한다. 진액은 정상적인 생리액과 분비액을 포함한 체액의 총칭이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 작용을 통해 진액이 생성되고, 폐의 역할을 통해 각 신체에 공급된다. 진액은 기관에 영양분을 더해 주는 자양과 인체 조직을

촉촉하게 하는 자윤 작용을 하고 혈액 형성에 참여해 혈액과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경에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코와 기관지 등 점막에 잘 도포된 점액은 방어, 식균, 완충 작용 등 1차 면역을 담당한다. 이때 진액의 일부인 점액으로 도포되지 못하고 병리산물로 진행된 담습이 배출되지 않고 폐 및 기관지에 쌓이면 비염, 축농증, 코골이, 무호흡 등

으로 나타난다. 소화기에서는 진액이 위 점막에 잘 도포돼야 위벽을 보호한다. 위염 또는 위궤양 등 위산에 의한 위벽 상처를 방지하고, 식도를 통과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물이 직접 위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어 및 완충 작용을 한다. 안구 표면, 즉 각막과 결막에서 만들어진 점액은 눈물막의 점액층을 이루고,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분비된 얇은 지방질이 기름층을 형성해 눈물막을 덮어 안구 점막을 보호한다. 이때 점액층과 기름층으로 도포되지 못하면

안구건조증으로 표현된다. 안구 표면으로 공급되지 못한 점액과 기름층이 대사되지 못하면 눈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입 안의 점액은 타액의 형태로 분비되고 구강 점막과 혀의 표면을 도포하며 소화를 돕고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 살균 및 면역 성분이 외부로부터 침투한 병원체를 막아내는 역할도 한다. 1차 방어선인 점막 면역이 풀리면 오염원과 병원체가 모세혈관으로 이행되고, 2차 면역력인 혈액 면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1차 방어선이 풀리지 않도록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점막 면역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 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출처: GettyimagesBank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습도는 가습기 사용해 40~60% 유지

환절기 축축한 몸 만들기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 고온다습한 날씨로 지쳤던 몸은 이 시기 또 다른 복병을 마주한다. 차고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다. 특히 직접 외부에 노출되는 눈과 코, 피부 등이 쉽게 자극을 받는다. 몸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생활 속 행동 요령을 살펴봤다. 하지수 기자

피부 로션보단 크림형 보습제 바르기
가을에는 피지와 땀 분비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피부 표면의 수분도 감소해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피부를 구출하는 열쇠는 보습제 사용이다. 보습제는 각질층의 지방 성분을 보충하고 지방층의 구조를 정상화해 피부 장벽의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장성은 교수는 “제품은 발랐을 때 자극이 없고 적절한 보습력을 유지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좋다”며 “다만 일반적으로 로션보다는 크림 제형이 보습 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의해야 한다. 안구건조증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긴다. 특히 장시간 전자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주기적으로 눈을 깜빡이면 위아래 눈꺼풀이 만나면서 눈물을 안구 전체에 도포하고 표면을 닦는 효과를 낸다. 인공눈물로 눈물을 보충해도 좋다. 단, 일회용 인공눈물은 개봉 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어 첫 한 방울을 버리고 사용한다. 다화용 인공눈물은 뚜껑이 열린 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된 사용 기한과 별개로 개봉 후 한 달 이내 쓰도록 한다. 렌즈를 낀다면 보습제가 들어 있지 않은 인공눈물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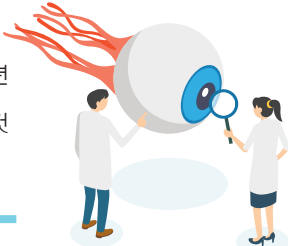
유지하는 비결은 물 자주 마시기다. 성인 기준 하루에 최소한 1.5L 이상, 컵으로 치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 보다는 조금씩 자주, 찬물보다는 상온의 물을 마셔준다. 또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한다. 집 안에 화분을 놓는 것도 도움된다. 식물은 앞에서 증산 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을 방출해 건조한 실내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습 효과가 뛰어난 식물은 쉐플레라·행운목·장미허브·돈나무 등이다. 호흡기를 축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온습포 요법이다. 60도가량의 물에 수건을 적시고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짠 다음 코와 입에 대고 입을 쩍는 방법이다.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활용한 코세척도 요긴하다. 한쪽 코로 생리식염수를 넣어 다른 쪽 코를 통해 나오게 하면 된다. 코세척을 할 때는 “아” 소리를 내야 코 뒤에서 귀로 가는 이관에 물이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코세척은 수분 공급뿐 아니라 유해 물질을 씻어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는 게 대표적이다. 침이 입술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축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침이 증발하면서 입술에 있던 수분도 함께 날아가 건조함을 악화할 수 있다. 각질을 치아나 손으로 뜯어내는 일도 금물이다. 입술은 다른 부위보다 피부층이 얇아 무리하게 뜯어내면 쉽게 상처가 나고 세균 감염으로 구순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대신 입술 각질이 심할 때는 각질을 충분히 불린 다음 립 스크럽제로 없애도록 한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입술에 1~2분 정도 두면 각질을 불릴 수 있다. 고 교수는 “만약 건조증 외에 통증과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수포까지 생기면 구순염일 수 있어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Tip

입-눈 건조하고 피로감까지 심하다면?

눈이 뻑뻑하고 입이 바짝 마를 때 건조한 날씨 탓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쇼그렌증후군이 원인일 수도 있다. 쇼그렌증후군은 면역 기능 이상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이다.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에 대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정상 조직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공격하면서 나타난다. 특정한 하나의 요인이 아닌 환경적·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홍연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물 없이 음식을 섭취하거나 말하기 힘들 때, 안구건조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며 “환자들은 이 유없이 심각한 피로감을 겪기도 한다”고 했다. 쇼그렌증후군은 특히 40~50대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엔 보습제, 팩은 20분 안쪽으로** 눈 자주 깜빡이고 눈꺼풀 세척도 건조해도 입술엔 침 바르지 말아야”
씻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목욕은 되도록 짧게 하고 자주 하지 않는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갈갈칼리성 비누는 피부 건조증을 악화할 수 있으니 약산성의 보습 비누를 쓰도록 한다. 때 밀기 역시 자제한다. 피부의 각질층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데 때를 밀면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보습층도 함께 줄어든다. 장 교수는 “굳이 때를 밀지 않아도 피부의 불필요한 각질은 저절로 제거된다”며 “가급적 때를 밀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샤워를 끝내고 나서는 3분 이내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전신에 골고루 발라준다. 건조해진 가을철 마스크팩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마스크팩 성분 자체에 알레르기가 없다면 팩을 매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 팩을 20분 이상 붙이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져 그 이상은 쓰지 않도록 한다.

“**눈 하루 1~2회 눈꺼풀 세척 도움**”
건조한 환경 탓에 바짝 마르는 건 피부의 수분만이 아니다. 눈 표면의 수분도 증발해 눈을 움직일 때마다 뻑뻑함,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안구건조증은 흔한 안 질환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막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입술 무항·무취·무색 보습제 권장
이 시기에는 입술이 하얗게 트고 갈라지기도 쉽다.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입술 보습용 립밤을 휴대해 수시로 발라줘야 한다. 특히나 입술에 바른 보습제는 밤을 먹거나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할 때 쉽게 지워져 더욱 신경 써서 덧바를 필요가 있다. 립밤은 가급적 3무(無), 즉 무항·무취·무색 제품을 고르길 권장한다. 한양대병원 피부과 고주연 교수는 “향이나 색조 등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덧바르면 입술에 자극을 주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색을 내고 싶다면 색조가 들어간 립 제품과 보습용 립밤을 따로 사용하길 권한다”고 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입술이 건조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침을 묻히

호흡기 물 8잔 이상 마시기
건조한 환경에서는 기도가 말라 작은 기침에도 쉽게 상처가 난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지고 편도선 붓는 일이 찾아질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을 막고 호흡기 점막을 축축하게

2025 메디케어 보험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 “**혹**” 달라진 보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과 \$3000의 치과 커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03-591-0009
703-537-9899

전화 주실 분

- ◆ 보험변경 하실 분
- ◆ 65세와 1960년생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
- ◆ 치과 커버 필요하신 분
- ◆ 안경 혜택과 OTC 혜택

조은혜 종합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건물 2층)

Partner
보험회사

앤티엄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힐스트 / 웰케어

합병증 위험 큰 소아 탈장, 몸에 부담 적은 고위결찰술로 해결

병원 탐방 기쁨병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찰력’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아픈 부위와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평소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세심하게 몸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이 과정에서 배 부근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했다면 탈장을 의심해야 한다. 탈장은 신체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약해진 부위 등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 나오는 질환이다. 강윤식 기쁨병원 병원장은 “소아 탈장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커 가능하면 발견 2주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게 좋다”며 “다만 어떤 병원을 택하느냐에 따라 후유증 발생 여부와 재발률이 달라질 수 있어 치료 기관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수 기자

소아 탈장은 보통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선천적인 요인은 제대로 닫히지 않은 초상돌기다. 고환이 제 위치를 잡기 위해 이동하는 통로인 초상돌기가 자연적으로 막히지 않고 남아 이곳을 통해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 후천적으로는 기침, 울음, 변비로 인한 힘주기 등으로 복압을 자주 올릴 때 약한 부위를 통해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

소아 탈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술.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마취에 대한 불안함, 수술 후 흉터와 합병증 발생 우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기쁨병원에서는 이러한 보호자의 걱정은 덜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윤식 기쁨병원 병원장은 “고위결찰술을 받고 나면 마취 후유증에 대한 염려 없이 수술 당일 퇴원하고 대부분은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뇌 발달 양성, 전신 마취 피하는 게 좋아
소아 탈장의 수술법은 크게 고위결찰술과 복강경 수술로 나뉜다. 이 중 기쁨병원이 집중하는 방법은 고위결찰술이다. 피부를 1.5cm가량 절개한 다음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튀어나온 탈장 주머니를 제자리로 넣고 벌어진 틈을 봉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복강경 수술은 배에 구멍을 뚫어 기구를 삽입한 뒤 카메라로 상태를 확인하며 수술을 한다.

이곳에서 고위결찰술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취 문제 때문이다. 복강경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하지만 고위결찰술은 국소마취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강 병원장은 “뇌가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되도록 전신 마취를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결찰술을 이용하면 아이 몸에 부담을 덜 주고 폐렴 같은 전신 마취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소아 탈장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소마취를 할 경우 아이가 수술 중에 불안해하거나 움직일까 봐 걱정하는 부모도 있다. 고위결찰술을 할 때는 10~20분간 지속하는 수면 유도제를 이용해 아이를 잠들게 한 뒤 바로 서서

간 효과가 이어지는 국소마취 주사를 놓는다. 강 병원장은 “수술을 하는 약 15분간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쉬면서 편하게 잠을 자고 통증도 전혀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국소마취 효과가 지속해 통증을 덜 느끼고 후유증 없이 당일 퇴원할 수 있다.

기쁨병원에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줄였다. 의료진은 고위결찰술을 하며 그대로 놔둬도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 속 탈장 부위를 꼼꼼하게 봉합한다. 이

후 피부 결면에 의료용 봉드를 발라 살이 자연스럽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한다. 절개한 상처 부위를 실로 꿰매지 않으니 추후 드레싱을 하거나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고 의료용 봉드가 방수막 역할을 해 다음 날부터 바로 샤워도 가능하다.

3만 건 넘는 탈장 수술 실적 보유
낮은 재발률은 기쁨병원이 고위결찰술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다. 소아 탈장 고위결찰술의 재발률은 1% 미만에 불

과하다. 또 강 병원장은 “복강경 수술과 달리 고위결찰술로는 숨어 있는 탈장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도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숙련된 전문의들이 수술 전 초음파 검사로 추가 탈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조치한다”고 했다.

질환의 재발 못지않게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흉터다. 고위결찰술 과정에서 생긴 흉터의 경우 절개 부위가 팬티라인 아래에 감춰져 잘 보이지 않고 아이가 자라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얇아진다.

하지만 장점이 많아도 의료진 입장에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고위결찰술이기도 하다. 가뜰이나 작은 아이들의 몸에 미세하게 절개를 하고 직접 눈으로 보며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장이 생기는 곳은 혈관, 신경, 근육이 집합해 있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풍부한 해부학 지식과 임상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외과 전문병원인 기쁨병원은 3만여 건의 탈장 수술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들도 10년 이상의 전문의들로 구성돼 있다. 강 병원장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로 탈장 전문 센터를 개설하는 등 탈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강 병원장은 “생후 25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는 수면 주사 후 국소마취로 고위결찰술이 가능하다”며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탈장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 1면 '마그네슘'에서 이어집니다

이때 안면신경이 분포하는 얼굴 근육에 간헐적이고 돌발적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반측성 안면 경련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에는 각종 감각을 담당하는 12가지 뇌신경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7번 뇌신경이 얼굴에서도 특히 눈과 입 주위 근육을 지배한다. 즉 이 뇌신경에 간섭이나 손상이 생기면 얼굴에 떨림과 경련이 생기는 것이다.

7번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선 뇌혈관 문제다. ‘전하소뇌동맥’이라는 혈관이 이 뇌신경에 근접해 있는데

이 혈관이 부풀거나 맞닿으면서 신경을 건드려 반응을 일으킨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는 “전하소뇌동맥이라는 혈관이 7번 뇌신경에 가까이 붙으면 맥박이 뛰 때마다 툭툭 신경을 건드리게 된다”며 “그러면 얼굴에 불수의적인 근육의 움직임, 즉 이차성 안면 경련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뇌동맥 혈관 벽에 칼슘이 쌓여 단단해지고 구불구불해지거나 파리 모양으로 부푼 뇌동맥류가 생긴 경우가 해당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경우 이전에 한쪽 얼굴이 떨리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얼굴 반측 경련은 뇌 신경 손상이 원인
흔하진 않지만 뇌종양도 이 같은 반측성 안면 경련의 원인이 된다. 신 교수는 “7번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혈관이 아니라 종양일 수도 있고 뇌경색에 의해서도 안면 경련이 생길 수 있다”며 “안면 경련 중에서 제일 많이 치료하는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도 “아주 드물지만 7번 신경 근처에 생긴 종양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차성 안면 경련의 원인질환이 되는 것은 뇌동맥류, 뇌종양뿐만이 아니다. 뇌전증이나 자가면역성 뇌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전 교수는 “안면

근육 떨림은 뇌전증 환자에서도 생길 수 있고 자가면역성 뇌염에서도 비슷한 얼굴 떨림이 생긴다”며 “얼굴 떨림과 함께 의식 소실이나 인지 저하, 또는 팔다리 쪽에 증상이 같이 있으면 뇌전증이나 자가면역성 뇌염일 수도 있는 만큼 이때 빨리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경우라면 머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검사로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심각한 질환에 의한 안면 경련이라면 원인질환 치료가 최우선이

다. 심각한 질환 때문이 아니라면 증상 완화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약물치료, 보톡스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약물치료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클로나제팜이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많이 쓰인다. 신경흥분을 억제하는 약으로 뇌전증, 공황장애에도 쓰이는 약이다. 약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 보톡스 주사로 해당 신경을 차단해 증상을 가라앉힌다. 수술은 귀 뒷부분을 찢고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치료재를 대서 혈관과 신경을 분리하는 수술이다.

류장훈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한방 칼럼

음식의 맛에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있다. 그 맛에 따라서 특정한 내장에 반영된다.

신맛은 간과 쓸개, 단맛은 위장과 췌장, 매운맛은 폐와 대장, 짠맛은 콩팥과 방광의 기능을 높여준다. 이중 매운맛은 늘어서고 처져 있던 신경 세포들이 다시 조여든다. 우울하거나 슬플 때 화끈하게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다시 삶의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술을 먹고 난 뒤 매콤한 해장국은 그래서 모두 얼큰한 것들이다. 폐?대장이 약해지면 까담 없이 눈물이 나거나 허무해지고 슬퍼지며 염세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긴장감이 모자라 피부가 탄력이 없어져 늘어서기도 한다.

40대 남자의 예를 들어본다. 키가 크고, 흰색의 피부이며, 외모는 안아픈 환철한 모습이지만, 잔병이 있었다. 폐결핵을 어렸을 때 앓았고 감기로 기침이 자주 난다. 겉으로는 밝은 모습이지만 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 만성 비염이 있어서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다. 손목에 힘이 없어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저녁이면 맥이 탁 풀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brain fog로 머리가 맑지 않고 숨이 찰 때가 많고 치질이 심해 수술도 했다. 배에서 소리가 나며

입맛이 나를 살린다 ⑤



권진열
헤민한의의원장

설사도 자주 한다. 이런 증상들은 폐와 대장이 약하며 긴장감이 매우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에는 얼큰하게 맵고 짠 것을 좋아했지만, 자극성 음식보다 담백한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운 것을 줄인 상태였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몸이 늘어서고 숨이 차며 전에 치질 수술도 했고 우울하며 설사도 자주하는 현상은 폐와 대장이 약한 것이므로, 매운 맛의 음식을 대폭 증가시키도록 권했다.

사실 담백한 맛은 건강에 좋다고 하여 억지로 먹은 것이다. 마음 속에서 입맛에 당기는 맛은 역시 매콤한 맛이었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 그는 늘어진 몸에 긴장감이 필요했고, 몸에 있는 염증들, 노폐물들도 짜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맵고 짠 것이 당겼다.

전에 즐겨 먹었던 아구찜, 매운탕처럼 비리고 얼큰한 것들이 계속 생각났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짠맛으로 간을 하고 고춧가루도 듬뿍 뿌려 먹었고, 폐와 대장에 좋은 곡식인 물에 오래 불린 현미, 율무를 밥으로 먹었고, 차도 매콤한 생각차를 마셨다. 그 결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겼으며 숨찬 것, 비염과 기침, 그리고 대장이 약한 설사 증상이 사라져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문의 : 301-922-9239

시니어

목적 갖고 살면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

건강하게 늙는 비결

자연에서 노화를 겪지 않는 동물은 단 2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인류는 노화를 겪는 동물중 하나다. 어차피 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나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21세기나 되고 첨단 과학을 자랑하며 우주로 나아가는 특별한 생물종임에도 인류는 노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소개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9가지 전략은 비록 노화를 막지는 못해도 시니어로 들어서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US뉴스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샘 김씨는 캘리포니아 옐로스톤에 거주하는 은퇴한 공인 회계사로 특히 숫자에 진심이다. 그는 최근 결혼 30주년을 맞았고, 하루에 30마일을 자전거로 달리고, 높아 보이는 산도 이미 30곳이나 거뜬히 오르내렸다.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숫자는 나이 뿐이다. 지금 70세인 그는 “나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진군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건강을 자신했다.

많은 시니어들은 만성 질환, 장애, 고립감에 직면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 어떻게 하면 김씨 같이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수명 연장과 연령에 따른 신체 변화
공중 보건, 의료 및 건강 교육 분야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미국 같은 선진국의 수명은 극적으로 길어졌다. 1900년에 미국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47세였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 따르면 2019년에는 거의 79세로 높아졌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따라 신체의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뼈의 질량이 줄고, 성 호르몬, 신장 기능, 정신적 예리함,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감소한다. 관절의 연골은 마모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소화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손상되며 시력과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이나 2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시니어 시기에 정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들은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간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 더 이상 볼 수 없다. 가까운 사람들, 즉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가 질병이나 치매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외로움, 고립,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은 우울증과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 상실로 이어진다. 더 아프고 허약 해져서 외출을 하지 않거나 사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기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기 위한 비결
건강을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이 미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중년기의 건강한 신체는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심혈관 질환, 근육 감소, 비만, 우울증, 암, 기타 여러 만성 질환

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포 수준에서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전신 염증, 신체의 지방,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뼈 밀도 및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중년에 건강한 식단을 가지면 시니어 시기에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분을 따르라=기본적인 건강 비결을 따라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지 않고 체중을 줄이고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일 밤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2.운동하라=운동은 신체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 모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서 뇌에 좋다. 근육을 키워서 넘어지거나 허약해 질 위험이 줄어든다. 강한 근육은 뼈를 덜 아프게 한다. 표준 권장 운동량은 테니스 게임이나 빠른 걷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주당 150분을 목표로 하면 된다.

3.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라=배우자나 직장을 잃는 등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은 인생의 기복을 극복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우울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4.사교 활동을 더 많이 하라=사교 활동은 외로움, 우울증, 고립과 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클럽에 가입하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이웃을 만나는 것도 좋다. 하루나 1주일 동안의 사회적 상호작용 횟수는 심장병과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대 수명을 향상시킨다. 심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비결들이 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연구로 입증됐다. [헛GPT생성]

지어 친한 친구일 필요도 없다. 커피숍의 누군가일 수 있고, 그로서리 마켓 계산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5.뇌활성화에 도전하라=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고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다. 많은 대학에서 온라인에서 무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막는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뇌를 계속 참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6.청력 손실을 평가하고 해결하라=청각 장애는 사회화와 정신적 자극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활동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7.스트레스를 줄이라=만성 스트레스는 신체의 염증을 증가시킨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C-반응성 단백질과 같은 신체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수명이 더 짧다.명상, 스트레칭, 해수 운동, 요가 등을 시도하라.

8.목적 가지고 살라라=목적 갖고 살면 알츠하이머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족을 돕거나,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일을 함으로써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9.햇빛 노출을 제한하라=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너무 심해져 몸 전체의 세포 노화가 빨라진다.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 위험도 증가시킨다. 직사광선에 15분 이상 노출되면 지속적으로 국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한다.

◆결론:전략을 결합해 실천하라
노화는 우울증, 기능 저하와 같이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결합해야 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가 가로 막을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장병희 기자

헤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13.9%	42.9%	2.9%	0.9%
매우물음	당초	노화사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뼈
좌골신경통

sciatica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영화관 다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기록 남기고 싶어”



“뉴욕 방문했을 때 오래된 필름 상영 극장이 있는 게 부러웠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간이 남아있을까, 궁금증이 생겨 시작한 프로젝트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영화관을 대체하는 시대다. 올여름 액션 영화 ‘탈주’의 256만 흥행 배우 이제훈(40)이 사라져가는 전국의 명물 영화관을 직접 찾아가는 유튜브로 변신했다. 유튜브 채널 ‘제훈씨네’를 통해서다. 강릉 다락방 영화관 무명, 1935년 개관한 국내 두 번째 오래된 광주극장 등 20곳 가까운 영화관, 문화공간, 독립·단편영화 감독·배우를 소개한다. 첫 방문지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철거된 원주 아카데미극장 거리.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 개관해 단관극장 원형을 지켜왔는데, 2022년 바뀐 시장이 시민 반발에도 철거했다. 66년간 충무로의 상징이던 대한극장 등 유서 깊은 영화관의 잇단 폐업이 그를 유튜브로 만든 계기다.

이공계 대학을 다니다가 24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2008학번)에 ‘늦깎이’ 입학한 이제훈은 데뷔 초 ‘파수꾼’(2011) 등 독립영화를 통해 뿔났다. 신인 시절 광화문 미로스페이스(폐관)·

영화관 소개 유튜브 된 배우 이제훈
대한극장까지 폐업, 위기의식 커
“지방은 멀티플렉스 극장도 없어져”
전국 영화관 100편 이상 촬영이 목표

씨네큐브, 압구정CGV 아트하우스 등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그에게 ‘제훈씨네’는 초심을 되짚는 의미도 있다. 그는 2019년 영화제작사(하드컷)에 이어, 2021년 1인 소속사(컴퍼니온)를 직접 설립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를 최근 서울 종로 영화관 에무시네마에서 만났다. 해외 출시된 ‘모범택시’ 시리즈(SBS), ‘탈주’ 동남아 팬 미팅, 올 하반기 방영할 tvN 예능 촬영, 내년 방영 예정인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 일본 로케이션 등 빽빽한 일정 속에 짬을 냈다고 했다.

“극장 가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많이 보다가 배우까지 꿈꾼” 그다. 사라지는 극장을 기록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 같지만, 살인적 스케줄 속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형성 대장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동의서에 사인하고 전신마취해 잡드는 순

간, ‘아, 인생 막 살걸’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걸’ 생각했어요. 몸을 추스르자마자 시작했죠.”

—영화관이 사라진 거리를 본 감정은.
“독립영화관뿐 아니라, 지방은 멀티플렉스 극장도 없어지더라. 영화 신작이 줄고 있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위기의식이 컸다.”

—영화관 선정 기준은.
“자주 가던 영화관, 추천받은 곳도 있다. 평소 애니메이션은 잘 안 봤는데, 부천에서 독립 애니메이션 극장과 제작자들을 만나며 시야를 넓혔다.”

—찾아간 영화관에서 직접 독립영화를 보고, 독립영화 감독·배우, 영화관 운영자, 지역 예술인을 인터뷰했는데.

“좋은 영화에 대해, 또 극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생각하고 얘기해보고 싶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관은.

“제주 단편 영화관 숏트롱, 강릉 다락방 영화관 무명이다.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힘들어서 부업 하는 분들도 많

다. 그 마음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이제훈에게 영화관은 “꾸밈없이 나답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가 ‘장군의 아들 3’(1992). 빼곡한 관객의 뒤통수와 같이 웃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8살 꼬마 눈에 신기했다고 한다. ‘초록물고기’(1997)의 강렬함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그는 “나만의 영화도 있지만, 같이 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가는 극장 문화가 그저 행복하다”고 했다.

—극장이 각별한 이유는.

“직접상 항상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게 된다. 지칠 때 극장에 가면 나를 돌아보고 채운다. 다르넨 형제, 켄 로치, 이창동, 홍상수 등 거장의 작품에서 인생을 배웠다. 독립영화는 세상을 깊게 보고 넓게 이해하

최근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 만난 배우 이제훈은 “제훈씨네를 계기로 영화관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애정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계 해준다.”

—100곳 이상 소개하는 게 목표라고.

“여느 유튜브 콘텐츠의 20~30배 제작비를 들인다. 의지를 다지기 위해 호기롭게 ‘제훈씨네’ 100편 촬영을 목표로 밝혔다. 시간이 지나 누군가 들춰봤을 때 ‘참 좋았다’고 공감하는 기록이 되면 좋겠다.”

3년 전 단편영화로 연출 데뷔한 이제훈은 감독으로서 차기작도 구상 중이다. 그리고 영화관을 운영하는 꿈도 갖고 있다.

나원정 기자

황금종려상 vs 황금사자상 ... 스크린 ‘아트영화’로 물들다

〈‘아노라’〉

〈‘롬 벡스트 도어’〉

올해 칸 국제 영화제 황금종려상,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이 2주차로 개봉해 맞대결한다.

여성 스텐다리퍼와 러시아 재벌 2세의 신데렐라 스토리 ‘아노라’(선 베이커 감독, 11월 6일 개봉)와 친구의 불법 존엄사에 동참하는 여성 작가의 비밀스런 여행기 ‘롬 벡스트 도어’(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23일 개봉)다. 국내 팬덤을 쌓아온 두 감독이 각각 성 노동자와 죽음이라는 화두를 파고들었다. 공교롭게

두 감독은 모두 뉴욕을 무대로, 독립적 방식으로 제작했다. 뉴욕의 극과 극 모습을 담은 아트버스터의 격돌이다.

‘롬 벡스트 도어’는 스페인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75) 감독이 틸다 스윈튼, 줄리안 무어와 함께한 첫 영어장편영화다. 말기암인 전직 종교기자 마사(틸다 스윈튼)가 옛 직장 동료이자 작가 잉그리드(줄리안 무어)에게 자신의 비밀 안락사 여행에 동행해줄 길 부탁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존엄

하게 죽을 권리를 지지한 작품으로,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장 18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황금사자상 수상 후 알모도바르 감독은 “이 세상에 깨끗하고 품위 있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소감을 밝히며, 스페인과 달리 안락사가 불법인 미국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아노라’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귀여운 여인”을 디즈니 가족영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반항적인 섹스 코미

디(가디언)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우즈베키스탄계 이민자 집안의 스텐다리퍼 아노라(미키 매디슨)는 클럽을 찾은 철없는 러시아 재벌 2세 이반(마크 아이델슈타인)과 불같은 사랑에 빠져 충동적으로 결혼한다. 행복도 잠시, 백마 탄 왕자인 줄 알았던 이반은 부모가 결혼 무효를 무릅쓰고 결혼 주도권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

코미디와 스릴러 장르의 변주를 통해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뾰족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선 베이커(53)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과거·현재·미래의 성 노동자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내년도 오스카 예측에선 ‘아노라’가 우세한 상황이다. 시상식 수상 예측 사이트 골든더비 등에 따르면 ‘아노라’는 작품·감독·각본·편집·여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수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원정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허삼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오타니 vs 저지 '세기의 대결' 성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꿈의 대결'이 성사됐다. 서부와 동부를 각각 대표하는 명문 구단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43년 만에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다저스는 21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에서 뉴욕 메츠를 10-5로 꺾었다. 챔피언십시리즈를 4승 2패로 끝낸 다저스는 이로써 2020년 이후 4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올라 통산 8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다저스 승리의 일등 공신은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던 토미 현수 에드먼이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그는 이날 다저스 4번 타자로 나서 2점 홈런 포함 2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또 챔피언십시리즈 6경기에서 타율 0.407(27타수 11안타), 홈런 1개, 11타점을 기록해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다저스와 월드시리즈 우승을 다룬 팀은 아메리칸리그 패권을 차지한 양키스다. 양키스는 지난 20일 끝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올 시즌 MLB 전체 승률 1위(0.605·98승 64패) 다저스와 2위(0.580·94승 68패)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퍼펙트 매치업'이 완성됐다. 다저스와 양키스가 펼치는 역사적인 월드시리즈(7전 4선승제)는 2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린다.

양대 리그 최고 명문 구단인 두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만난 건 1981년 이후 43년 만이다. 역대 12번째 맞대결이자 21세기 첫 격돌이기도 하다. 두 팀은 20세기에 총 11차례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만났다. 우승 횟수는 양키스가 8회, 다저스가 3회다. 그러나 가장 최근 맞대결인 1981년엔 다저스가 4승 2패로 양키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오타니 쇼헤이



애런 저지

생년월일	1994년 7월 5일	1992년 4월 26일
소속팀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포지션	지명타자(우투좌타)	외야수(우투우타)
신체조건	키 1m93cm, 몸무게 95kg	키 2m1cm, 몸무게 128kg
MLB 데뷔	2018년	2016년
계약 규모	10년 7억 달러(2024~33년)	9년 3억6000만 달러(2023~31년)
주요 경력	2021-23 AL MVP 2018 AL 신인왕 2021-23 AL 올스타 2024 NL 올스타	2022 AL MVP 2017 AL 신인왕 2017-18-21-24 AL 올스타
2024 성적	159경기 타율 0.310, 홈런 54개, 130타점, 도루 59개, OPS 1.036	158경기 타율 0.322, 홈런 58개, 144타점, 도루 10개, OPS 1.159※OPS=홈루율+장타율

로 50홈런(54개)-50도루(59개)를 달성하는 신기원을 열었다. 저지는 홈런 58개에 144타점을 기록하면서 두 부문 모두 MLB 1위에 올랐다. 올해 규정 타석을 채운 MLB 전체 타자 중 OPS(출루율+장타율)가 1을 넘어선 타자도 오타니(1.036)와 저지(1.159)뿐이다. MLB닷컴은 "한 시즌 50홈런 타자를 보유한 팀끼리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심지어 둘은 오타니가 LA 에인절스에 몸담았던 지난해까지 아메리칸리그 MVP를 놓고 엇지락뒤치락하던 동료이자 라이벌 관계다. 2021년엔 오타니, 2022년엔 저지, 2023년엔 오타니가 차례로 MVP 트로피를 가져갔다. 특히 2년 전인 2022년의 대결이 백미였다. 저지는 당시 홈런 62개를 터트리면서 팀 선배 로저 매리스가 1961년 남긴 종전 아메리칸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61개) 기록을 61년 만에 갈아치웠다. 오타니는 타자로 홈런 34개와 95타점을 기록하면서 투수로도 15승, 평균자책점 2.33 탈삼진 219개를 기록했다. 결국 '62홈런'의 상징성을 등에 업은 저지가 그해 MVP로 선정됐다. 하지만 오타니는 이듬해 만장일치로 MVP상을 받았다.

오타니와 저지 모두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오타니는 디비전시리즈에서 부진했지만, 챔피언십시리즈 6경기에서 타율 0.364, 홈런 2개 6타점 9득점으로 살아나는 기색을 보였다. 반면 저지는 올가을 1할대 타율(0.161)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매특허인 홈런도 디비전시리즈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챔피언십시리즈에서 2개를 때려 체면치레를 했다. 배영은 기자

상처 아물기엔 짧았던 두 달... 안세영, 컴백 무대 준우승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파리올림픽 이후 첫 국제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 오르며 정상급 실력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에 치유할 상처들이 적지 않은 듯 했다.

세계랭킹 2위 안세영은 지난 20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덴마크 오픈(수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세계 3위)에 0-2(10-21, 12-21)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파리올림픽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배드민턴 대표팀의 행정 및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

출했다. 양팀 간판타자 오타니 쇼헤이(30·다저스)와 애런 저지(32·양키스)가 펼친 '세기의 대결'도 관심거리다. 오타니와 저지는 올 시즌 MLB 역사상 최초로 리그 MVP를 사실상 예약한 현역 최고 스타들이다. 오타니는 올 시즌 MLB 역사상 최초

올렸다. 양팀 간판타자 오타니 쇼헤이(30·다저스)와 애런 저지(32·양키스)가 펼친 '세기의 대결'도 관심거리다. 오타니와 저지는 올 시즌 MLB 역사상 최초로 리그 MVP를 사실상 예약한 현역 최고 스타들이다. 오타니는 올 시즌 MLB 역사상 최초

올렸다. 양팀 간판타자 오타니 쇼헤이(30·다저스)와 애런 저지(32·양키스)가 펼친 '세기의 대결'도 관심거리다. 오타니와 저지는 올 시즌 MLB 역사상 최초로 리그 MVP를 사실상 예약한 현역 최고 스타들이다. 오타니는 올 시즌 MLB 역사상 최초

보인다. 이번 대회 준우승과 함께 안세영은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이 파리올림픽 이후 휴식을 선언하고 국제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현재 1위 천위페이(중국)의 랭킹 포인트를 뛰어넘었다"면서 "새 랭킹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워싱턴로 맞은 편(한미은행+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철타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미은행+mar)과 철타클 롯데에서 2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버트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식스센스

카툰필러이 THE SIXTH SENSE 금주의주제 안전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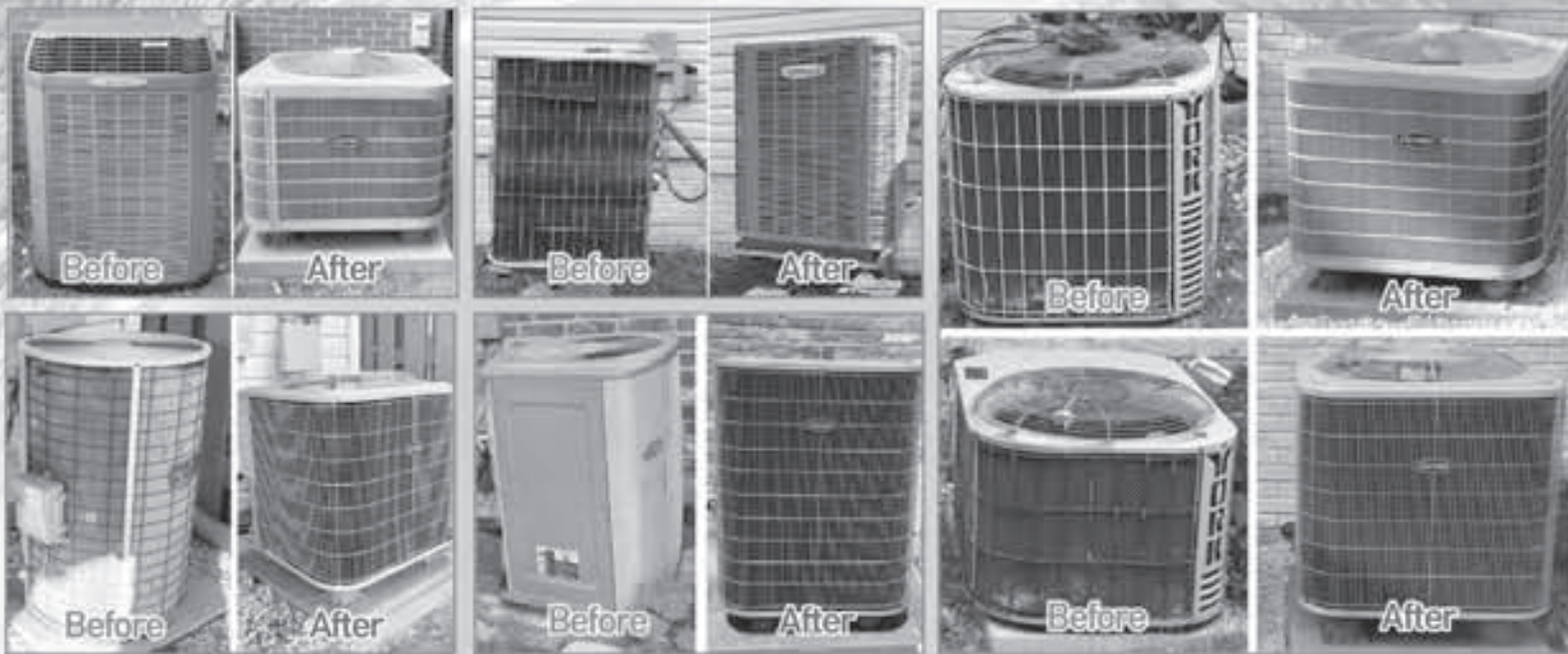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종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파사테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jwi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종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출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중앙일보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무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92차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크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캠,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301-537-3800

No.1콜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널빌.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훔벌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종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or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7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택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급매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에 위치한자택렌트합니다. (알링턴2마일, DC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아름다운 집입니다. 크레디없는분도가능합니다. 월\$7,495. 703-244-3453

애난데일 큰주택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방 렌트. DC까지 7마일. 집앞에 버스탑업함. 703-244-3453

애난데일에 위치한 주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5500sf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크레디 없는 분도 가능. 703-244-3453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 1. 화 1. 냉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한강위 방 1/화 1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 타운하우스 방 1/욕실/유포 센터빌 롯데근처 571-970-8048

▶▶ 애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코너 근접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 보내주세요. 571-345-8879

▶▶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703-598-6087

▶▶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 첼턴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 2, 거실, 화장실, 풀키킨,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 애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 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카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러커 | 식당 | 카페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구인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속속 걸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천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셀 영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매우먼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컨, 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컨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민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축,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팅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Platinum) 결혼 예물 셋팅 전문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 지하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Before/After images showing mulching results)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one) at (one's) word; (누구의) 말을 믿다

(Sammy and his wife Judith are talking ...)

(새미와 아내 주디스가 이야기를 나눈다 ...)

Judith: You have been very quiet.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주디스: 당신 요즘 너무 말이 없어.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어?

Sammy: Nothing that I really want to talk about.

새미: 정말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

Judith: We've always talked about everything. Why don't you want to get it off your chest?

주디스: 우리 뭐든지 항상 얘기했잖아. 왜 털어놓지 않아?

Sammy: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now. I just don't think it's the right time.

새미: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Judith: I'll take you at your word.

주디스: 당신 말 믿을게.

Sammy: Thank you. I appreciate your patience.

새미: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Judith: I learned a long time ago that it doesn't do any good to have it out with you.

주디스: 당신과 말다툼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오래 전에 알았어.

Sammy: I don't remember having it out with you.

새미: 당신과 말다툼한 기억이 안나는데.

Judith: You have a short memory. I remember many times.

주디스: 잘 잊어버리니 그렇지. 내 기억으론 한 두 번이 아니라.

Sammy: Well, I call them discussions.

새미: 글썽, 난 상의한 거였는데.

기억할만한 표현

▶ have something (or a lot) on one's mind: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많다).

"Since she started her business she has a lot on her mind." (그녀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 get it or something off (one's) chest: 걱정거리를 털어놓다.

"She got it off her chest so she feels better." (그녀는 속 얘기를 털어놓은 다음에 기분 나아졌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 결혼식에 초청하는 편지 (3) 효녀 딸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 (5)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림. 전입 ~ (7) 배의 부분 (8) 값이 싸거나 질이 낮은 물건 (9)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11) 얼굴을 대한 바로 앞. 그런 일을 ~에서 말하기는 축스럽구나 (12) 오랜 기간에 걸쳐 싸우는 싸움 (14) 예순 살. 공자가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지 (16) 다른 사람을 품에 껴안음 (18) 폭이 매우 좁고 작은 물줄기. 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 이야기 지줄대는 ~이 휘돌아 나가고/얼룩빼기 황소가/해설피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정지용) (20) 가시가 있어 남부 지방에서는 울타리로 심는다. 꿀을 담은 노란색 열매는 향기가 좋고 신맛이 강하다 (21)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23) 꽃, 과일, 문방구 등을 그린 그림 (26)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움 (27) 지붕의 안쪽, 방의 위쪽 (29) 기를 높이 걸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시설 (30) 몹시 인색한 사람

세로열쇠

(1) 결혼하기를 청함 (2)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 (3) 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4)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 소꿉친구만 스쳐도 ~의 인연이라고 한다 (6) 높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고 하는 장례 풍습.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7) 마귀가 숨어 있는 소굴. 나쁜 일을 피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 (8)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10)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11) 결혼식 때에 신부가 머리에 써서 뒤로 늘어뜨린 (13)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5)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 (17)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18)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 (19) 하천의 바닥이 주변의 평지보다 더 높은 하천 (20) 불교의 신앙 대상이나 내용을 그린 그림 (22) 나무나 풀에 내려 눈같이 된 서리. 덕유산 향적봉의 ~가 환상적이었다 (24) 발로 물위를 계속 치는 일 (25) 사람이 등에 지고 짐을 옮기도록 만든 우리나라 특유의 운반 기구 (28) 철사나 구리선으로 엮어서 만든 것으로, 구이를 할 때 쓰는 조리용 기구

스도쿠

3		1		9				
		5		4	1	3	9	7
4				8	3	2		
			3		5		7	2
9				7				
1		7	9		4		5	3
						7	6	1
6		8			7		2	9
	9	2		5	6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3	4	9	5	1	2	6	7
6	2	5	7	3	4	8	1	9
1	9	7	6	2	8	4	3	5
3	5	8	4	9	6	7	2	1
6	4	1	8	7	2	3	5	9
2	7	6	5	1	3	9	4	8
5	1	2	3	8	7	6	9	4
7	6	3	4	1	9	5	8	2
4	8	9	2	6	5	1	7	3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스시쉐프-폴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구인 매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력이 깊어 소식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묘지 급매(주인)
 2지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 Jung

잘되는 옷수선 전문점
 급귀국 영도매매, 맨하탄번지 (213)268-9946

기타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통,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말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검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듬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비즈니스 홍보 걱정 끝 ~

중앙일보 '안내광고'가 있잖아요.

The JoongAng
 Korea Daily 중앙일보 **Tel. 213.368.252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국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Los Angeles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잘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